

YÉOL
Korean Heritage
Preservation Society

예
·
을

사직단 자료집
- 시기별 변천 개요 -

2013.11.26.

재단법인 예올

YÉOL
Korean Heritage
Preservation Society

예
울

사직단 자료집
- 시기별 변천 개요 -

재단법인 예울

사직단 자료집

참여연구진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연구책임)

박일향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장필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수로

이석준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과정

최준호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과정

채우리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과정

발행처

재단법인 예울

주소 (우)110-2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7-6 (북촌로 50-3)

전화 02) 735-5878 / 736-5868

팩스 02) 736-5878

• 재단법인 예울 및 연구진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례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1
2) 조사의 내용	1
3) 자료집의 구성	2
2. 조선시대	
1) 조선전기 : 사직단의 설립과 운영	4
2) 조선후기 : 사직단의 복설과 운영	13
3) 대한제국기 : 제국의 제사시설로서의 사직단	26
3. 일제강점기	
1) 1910년대 : 사직단 제사의 폐지	30
2) 1920년대 : 사직공원의 조성	33
3) 1930-40년대 : 사직공원의 변화	40
4. 해방 이후	
1) 해방 후 - 1967년 : 도시 내 유휴시설 활용	47
2) 1967 - 1985년 : 본격적인 시민공원으로의 개발	51
3) 1985년 이후 : 사직공원 성역화 논의의 시작	56
5. 정리	59
6. 참고문헌	64

부록

- 1_ 사직단 자료집 : 조선왕조실록 기사편
- 2_ 사직단 자료집 : 신문기사 편
- 3_ 사직단 자료집 : 이미지 자료 편 (지도·항공사진·회화·사진·지적도)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서울 사직단 영역의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사직단 영역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직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기적으로는 사직단이 설치된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직단 영역이 공원으로 바뀌게 된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현대까지를 범위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사직단을 포함하여 현재의 사직공원 영역 및 주변 지역을 다룬다.

2) 조사의 내용

사직단 일곽의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1) 문헌 조사

사직단과 주변 시설 및 도시 영역의 변화상을 알려주는 조선왕조실록과 근현대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여 원문 기사의 목록을 구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다.

2) 이미지 자료 수집

회화, 사진, 지도 등 사직단과 주변 도시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지적(地籍)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시기별로 사직단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3) 자료집의 구성

① 시기별 변천 개요

1) 장별 서술 방식

- 2장. 조선시대 :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내용을 통해 시기별 사직단 설립과 운영 과정을 재구성함.
- 3장. 일제강점기 : 신문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직공원의 조성 및 개발 과정을 서술함.
- 4장. 해방 이후

② 조선왕조실록 기사 편(부, 사직서의궐)

1) 수집 내용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에서 ‘社稷’이라는 검색어로 전체 기사 검색함.
- 검색 결과 중 사직단의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 즉, 공사·제도·사건·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 등을 발췌하여 수집함.
- 사직단 신주의 이동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 실리지 않은 내용은 사직서의궐의 기사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함.

2) 정리 방법

- 조선왕조실록 기사의 권명, 년월일, 기사명(인터넷 사이트 제공), 국역, 원문을 시기별로 표로 정리함.
- 사직서의궐 기사의 원문은 영인본을 스캔하여 첨부함.

③ 신문기사 편

1) 수집 내용

검색어	신문 명	검색 사이트	조사 시기
사직단, 사직공원, 황학정	황성신문	미디어가온	1898 - 1910
	대한매일신보	미디어가온	1904 - 1910
	매일신보	미디어가온	1910 - 1941
	동아일보	네이버, 미디어가온	1921 - 1999
	신한민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5 - 1928
	시대일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4 - 1926
	중외일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6 - 1931
	경향신문	네이버	1946 - 1988
	조선일보	조선일보 아카이브	1968

2) 정리 방법

- 신문명, 년월일, 면, 단, 제목, 본문을 시기별로 표로 정리함.
- 기사와 같이 실린 사진은 표에 첨부함.

④ 지도 및 항공사진 편

1) 수집 내용

- 단행본과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http://aerogis.seoul.go.kr>)에서 지도 및 위성 사진을 수집함.

2) 정리 방법

- 지도명, 제작시기(촬영시기), 크기, 출처 등을 시기별로 표로 정리함.
- 각 지도 및 항공사진 별로 사진단 일괄의 특징을 서술함.

⑤ 회화 및 사진 편

1) 수집 내용 및 정리 방법

- 단행본과 국가기록원 기록물에서 회화 및 사진을 수집함.
- 회화·사진명, 출처를 시기별로 표로 정리함.

⑥ 지적도 편

1) 수집 내용 및 정리 방법

- 국가기록원과 종로구청에서 토지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조사부, 임야원도, 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를 수집함.
- 사직동 1번지와 산1번지의 필지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채록하여 카드 도면화 함.

2. 조선시대

1) 조선전기 : 사직단의 설립과 운영

태조대(1392-1398)에는 나라를 새로 세우며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사직에 대한 제도가 구축되었으며, 새 도읍에 사직단을 축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기 이전, 태조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사직의 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도록 하였고, 사직단직(社稷壇直)을 관제(官制)에 포함시켰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조실록 1권	1392.07.28.丁未 (태조1년)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태조실록 1권	1392.07.28.丁未 (태조1년)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중략) 사직단직(社稷壇直)은 2명이다.

사직단은 조선 건국에 이은 한양 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종묘, 궁전, 조시(朝市), 도로 등과 함께 계획되었다. 즉, 사직단은 도성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의 하나로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 한양에서의 사직단 축조를 위한 계획은 1393년부터 1394년경까지 이루어졌으며, 1395년에 실제적인 공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조실록 3권	1393.02.10.乙酉 (태조2년)	삼사좌복야 영서운관사(三司左僕射領書雲觀事) 권중화(權仲和)가 새 도읍의 종묘(宗廟)·사직(社稷)·궁전(宮殿)·조시(朝市)를 만들 지세(地勢)의 그림을 바치니, 서운관(書雲觀)과 풍수 학인(風水學人) 이양달(李陽達)·배상충(裴尙忠) 등에게 명하여 지면(地面)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김사행(金師幸)에게 명하여 먹줄(繩)로써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1394.09.09.丙午 (태조3년)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 정도전·청성백 심덕부·참찬 문하부사 김주·좌복야 남은·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권중화 등은 전조 숙왕(肅王) 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옛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亥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壬座丙向)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감방(坎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에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
태조실록 6권	1394.11.03.己亥 (태조3년)	도평의사사에서 장신(狀申)하였다. “종묘와 궁궐과 성곽은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한 관청에 명령하여 공사를 독촉하도록 하소서.”
태조실록 7권	1395.01.29.甲子 (태조4년)	사직단을 영조(營造)하였다.
태조실록 7권	1395.02.24.戊子 (태조4년)	사직단의 공사가 있었다.
태조실록 13권	1398.04.21.丁酉 (태조13년)	종묘·사직·원단(園壇)과 여러 용추(龍湫)에 비를 빌었다.

태조대에 축조된 사직단은 영조척(營造尺)에 근거한 너비 2장 5척의 단(壇)과 4면의

문과 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단을 둘러싼 낮은 담인 유(塼)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주척(周尺)이 아닌 영조척으로 한 것은 단의 크기를 크게 하여 찬기(饌器)를 수용하게 하기 위함이고, 유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예를 쫓은 것이었다.

권 명	날짜	내용
세종실록 57권	1432.09.01.丙辰 (세종14년)	맹사성은 말하기를, “처음에 주자(朱子)의 설에 의거하여 주척(周尺) 25척으로 단(壇)의 나비로 하고, 주척 25보로써 유내(壇內)의 상거(相去)로 하니, 그 진설(陳設)할 때에 단상(壇上)이 좁아서 찬기(饌器)를 용납할 수가 없어, 부득이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영조척(營造尺) 25척으로 단(壇)의 나비를 삼은 후에야 겨우 찬기를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려(高麗)의 사직단도 유(塼)는 없었는데, 건국 초기에 세운 사직단은 유를 설치하지 않고 사면(四面)에 문과 원장만 있었습니다.”

1394년 한양 천도 이후 정종대(1398-1400)에 이르러 왕자의 난을 계기로 수도가 개경으로 옮겨졌으나, 종묘와 사직은 여전히 한양에 위치하였다. 이는 종묘와 사직을 개경으로 옮기자는 사헌부의 청을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는 태종실록 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묘와 사직이 한양에 그대로 위치하였다는 사실은 태종의 한양 재천도의 주요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종실록 5권	1403.01.08.丙戌 (태종3년)	사헌부(司憲府)에서 종묘(宗廟)·사직(社稷)을 구경(舊京)으로 옮기어 제사 일(祀事)을 친히 행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0권	1405.10.20.壬午 (태종5년)	“한성(漢城)의 도읍은 실(實)로 도록(圖錄)에 응(應)하여 태상왕(太上王)께서 경하신 곳이요, 종묘(宗廟)·사직(社稷)이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옮기기를 어렵게 여기어 살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데, 전하께서 종묘(宗廟)의 중함과 당구(堂構)의 의리로 옮기지 않을 수 없으시어, 종묘에 고하여 길(吉)한 곳을 얻어서 궁실(宮室)을 영건하고 환도(還都)하시었으니, 종묘를 높이고 백성의 뜻을 정하고, 태상왕의 환심(歡心)을 받는 것입니다.”
태종실록 (13권)	1407.06.19.辛丑 (태종7년)	“그리고 환도(還都)한 것은 송도(松都)에 있으면서 여러 번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를 종묘(宗廟)·사직(社稷)이 모두 신도(新都)에 있으니 마땅히 옮겨야 될 것이라고 여겨, 환도(還都)한 것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승(政丞)이 말하였다고 한다.”

태종대(1400-1418)에는 사직단에 대한 관제 및 규정이 보다 정비되었으며, 부주군현(府州郡縣)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각 고을에 사직단이 설치되었다.²⁾ 사직단은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燕享)·공거(貢擧)·복축(卜祝) 등의 일을 관장하는 예조(禮曹)에 소속되었으며, 종묘, 별묘(別廟)와 함께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대사(大祀)로 지정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종실록 9권	1405.03.01.丙申 (태종5년)	예조는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燕享)·공거(貢擧)·복축(卜祝)의 일을 맡고,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계제사(稽制司), 둘째는 전향사(典享司), 셋째는 전객사(典客司)이다. 예조에 속한 것은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경연(經筵)·서연(書筵)·성균관(成均館)·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사(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교서관(校書館)·

1) 장지연, 「조선 초 중앙 社稷壇 壇制의 형성과 그 성격」, 『서울학연구』, 43호, 2011, 117-119쪽
2) 유훈조, 「조선시대 주현사직단의 시설 및 부속 건축물 설치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20호, 2012, 223쪽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司醞署)·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사려소(司禱所)·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清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書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廩署)·사직단(社稷壇)·관습 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각도 학교(各道學校)·의학(醫學) 등이다.
태종실록 11권	1406.06.05. 癸亥 (태종6년)	예조에서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건대, ‘부·주·군·현(府州郡縣)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행하고,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사(里社)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개성 유후사(留後司) 이하 각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25권	1413.04.13. 辛酉 (태종13년)	예조에서 여러 제사[諸祀]의 제도를 올렸다.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피건대, 사직·종묘·별묘(別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감(先蠶)·문선왕(文宣王)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祭祭)·칠사(七祀)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

또한 태종대에는 사직단의 보수·정비 및 담장과 재실 조성 공사가 개시되었다. 1406년에 시작된 사직단 일곽의 수리는 이듬해 완공을 앞두고 가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414년에 사직단의 단(壇)과 유(壇), 담장 공사가 재개되었다. 유의 크기는 한 변이 25보(步), 즉 150척이 되게 하였으며 이는 송(宋)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그 바깥으로는 남·서·북쪽은 산세에 맞추고 동쪽으로 140보의 거리를 갖는 담장이 둘러졌다. 한편 사직단에 신위 등의 보관을 위한 재실(齋室)의 건립 논의가 1413년에 제기되었으며, 1416년에 이르러 설치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종실록 12권	1406.07.21. 戊寅 (태종6년)	원단(圓壇)·적전(籍田)·사직·산천단(山川壇)·성황당(城隍堂)의 단장(壇場)과 난원(欄園)을 수리하게 하고, 인하여 수호(守護)하는 인정(人丁)을 차등 있게 주었다.
태종실록 13권	1407.04.08. 壬辰 (태종7년)	“지난해 가을부터 승도(僧徒)들을 모아 창고의 쌀[粟米]을 공급하고 사직단장(社稷壇場)과 창고(倉庫)·관사(館舍)를 경영(經營)하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니 승도도 또한 사람이다. 어찌 이토록 수고롭고 곤(困)하게 할 수 있는가? 제군부(諸君府)와 조방(朝房)은 비바람만 피하면 가(可)하다. 어찌 반드시 저토록 장려(壯麗)하게 할 것이 있는가?”
태종실록 13권	1407.05.22. 乙亥 (태종7년)	의정부에서 “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역사(役事)하던 무리를 파해 보냈으나, 사직단과 왜객관(倭客館)이 완성되어가니, 인부를 차출하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으나, 임금의 허락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5권	1413.06.08. 乙卯 (태종13년)	예조에서 “제사(諸祀)의 단유(壇壝) 안에서는 오직 사직단과 풍운뢰우단만이 법식대로 축조되었습니다. (중략) 여러 사단(祀壇) 안에 비록 제단을 둔 곳이 있으나, 신주(神廚), 제기고(祭器庫), 제관(祭官)의 재소(齋所)가 없어, 신(神)의 위판(位版)과 축판(祝版)을 제사한 뒤에는 항상 남의 집에 다 두게 되고, 혹 비나 눈을 만나면 전물(奠物)의 공비(供備)와 제관이 재숙(齋宿)할 장소조차 없으니, 고제(古制)에 의하여 신주와 제기고, 제관의 재소를 짓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1414.04.17. 庚申 (태종14년)	예조에서 사직의 둘레 담장(周牆)의 제도를 바꿨다. “둘레 담장(周牆)은 송조(宋朝) 의례국(儀禮局)의 오례 신의(五禮新義)에 의하여 4문(門)이 동일한 유(壇)로서 25보(步)의 제도를 1유(壇)로 삼았고, 소흥(紹興) 13년 양존중(楊存中) 등이 상언한 것에 의하면 둥근 담장(圓牆)은 유(壇) 외에 40보(步)의 제도로서 남쪽·서쪽·북쪽은 산강(山岡)으로 한계를 삼고, 동쪽 한계는 1백 40보(步)를 수축(修築)하여 대차(大次)의 의장(儀仗)과 금위(禁衛)의 배열(排列)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1416.09.12. 庚子 (태종16년)	원단·사직·풍운뢰우·선농의 여러 단(壇)에 재실(齋室)을 지었으니, 예조(禮曹)의 계문(啓聞)에 따른 것이었다. 또 “제삿날에 혹 비와 눈을 만나면 충

		호위(忠扈衛)로 하여금 약차(輦次)를 설치하여 행제(行祭)하게 하소서.”하여 그대로 따랐다.
--	--	---

이와 함께 위패 및 제사에 필요한 물품 등도 정비되었다. 이때 위패의 규격은 중국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해 결정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종실록 12권	1406.10.04.庚寅 (태종6년)	경사(京師)의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냈다. “본국에서 조상의 사당(廟)과 사직에 제사하는 제복이 만든 지가 오래 되어 모두 다 낡고 해졌는데, 본국에서는 나금 초단(羅錦綃段)이 전혀 생산되지 않아 새로 만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안노생을 파견하여 백흑 저마포(白黑紵麻布) 3백 필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제복을 만들 재료를 바꾸어 오게 합니다.”
태종실록 18권	1409.07.07.丁丑 (태종9년)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면, 사직단 신평(神牌)의 몸높이가 2척 2촌, 너비 4촌 5푼, 두께 9푼, 좌고(座高) 4촌 5푼, 너비 8촌 5푼, 두께 4촌 5푼이다. 문선왕 위판은 사직단신의 위판 규식에 의해 제조한다.
태종실록 22권	1411.08.25.甲寅 (태종11년)	예조에서 “조경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빛과 길이를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쓰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

또한 사직단 일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청재감 감찰(淸齋監監察)을 회복시켜, 사직단 등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사람을 재숙(齋宿)시켜 평소에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태종실록 19권	1410.02.07.甲辰 (태종10년)	청재감 감찰(淸齋監監察)을 회복하였다. 사헌부에서, 신소(神所)를 평소에 살피지 않다가 제사가 임박하여 깨끗하게 하려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종묘·원구·사직·소격전(昭格殿)·문소전(文昭殿)·계성전(啓聖殿), 전사시(典祀寺) 등에 감찰(監察) 한 사람을 재숙(齋宿)시켜, 정하지 못함을 고찰하게 하고, 섭행(攝行) 봉사(奉使)하는 신하가 치재(致齋)하는 곳도 고찰하게 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하도록 하였다.

세종대(1418-1450)에는 사직단의 제사가 매우 중대한 것임을 강조하는 기사가 실록에 다수 등장하였다. 예조(禮曹)에서는 국상 중에도 사직의 제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태종 승하 시에는 졸곡(卒哭)을 지내기 전까지 사직을 제외한 모든 제사를 금지하였다. 이는 사직을 종묘보다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로 본 것이다.

권 명	날짜	내용
세종실록 9권	1420.08.01.丁酉 (세종2년)	사직에 제사하였다. 예조(禮曹)와 정부(政府)가 같이 의논하기를, “사직은 종묘(宗廟)보다 위에 있는 것이니, 국상중이라 하여 신(賑)을 폐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1422.05.10.丙寅 (세종4년)	예조에서, 태상왕이 돌아가신 후 졸곡(卒哭)에 이르기까지 사직을 제외하고 대·중·소의 모든 제사를 정지하고, 정사는 10일간 정지하고, 시장은 5일간 정지하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살도 금하고 3년 동안 음악을 사용하지 말고, 졸곡 뒤 대사(大祀)에만 음악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1권	1426.01.24.己未 (세종8년)	예조에서, 사직은 대사(大祀)인데 수복(守僕)이 관대(冠帶)도 없이 일을 보니, 종묘 문소전과 같이 수복 세 사람에게 검정 갓과 붉은 옷을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2권	1426.04.12.乙亥 (세종8년)	사직단과 선농단의 제사는 모두 백성의 일을 위한 것이므로 진실로 중대한 제사이다. 옛날 제왕도 선농단에서 제사 지낼 때 몸소 쟁기를 잡고 제

		사를 행했다. 금년부터는 제사지내기를 신명(神明)이 와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	--	--

이러한 가운데 1426년, 사직단(社稷壇)을 승격하여 사직서(社稷署)로 하고, 종7품의 승(丞)을 두어 종묘서의 승 아래에 서열 시켰다. 이는 자연신인 토지신과 곡신을 모시는 사직은 선왕을 모시는 종묘에 비하여 의미상으로는 상위에 있으나, 현실적인 제사의 규모와 국왕의 관심은 종묘에 뒤지는 이중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 명	날짜	내용
세종실록 32권	1426.06.09.辛未 (세종8년)	이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당나라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교사서(郊社署)의 영(丞) 1인은 종 7품으로 태상시(太常寺)에 소속되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거하여 사직단(社稷壇)을 승격시켜서 서(署)로 삼고, 승(丞) 1인은 종 7품으로 두어 종묘서(宗廟署)의 승(丞) 아래에 서열(序列)시키되, 봉상시 주부(注簿)로 겸하여 임명하고, 단직(壇直) 2인을 고쳐서 녹사(錄事)로 삼고, 그 반열(班列)의 위차는 그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3권	1426.08.09.庚午 (세종8년)	예조에서 사직서(社稷署)의 정문(門)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서(本署)를 이미 7품 아문(衙門)으로 신설하였으니, 그 관사의 서리(書吏)를 품등이 같은 전옥서(典獄署)의 서리 7명 중에서 2명을 감하여 본서에 배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한 사직단의 담 보수와 함께, 위패와 단유(壇墪) 등의 정비가 논의되었다. 사직단 제도는 대사(大祀) 중에서도 종묘보다 높은 예로 규정되었으나, 단의 제도는 중국의 주현급에 해당하는 2장 5척의 단이었다.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대사급 제례에 걸 맞는 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427년과 1430년 세종대 음악 개혁을 맡았던 박연(朴堧)이 단제에 대해 논의하여 1432년 1월부터 사직단 개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사헌 정초가 이에 반대하며 단제 개축을 신중히 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집현전에서 사직단의 초안을 만들고 관료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건설된 유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유의 너비와 높이만 영조적으로 조정하고 단 사이 간격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의견이 귀결되었다.³⁾

권 명	날짜	내용
세종실록 3권	1419.03.02.丙午 (세종1년)	사직단의 담을 수리하였다.
세종실록 37권	1427.09.04.己丑 (세종9년)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박연(朴堧)이 진언하되, ‘악기가 갖추지 못했고 제단(祭壇)을 흙으로 쌓아 원장(垣牆)이 없으니 미편하다.’ 합니다. 담을 쌓고 그대로 집 3간(間)을 지어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사직단도 또한 협착하여 헌관(獻官)이 오르내리면서 신위(神位)에 너무 가까우니 고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단을 고쳐 만들 것은 이미 일찍이 이를 의논하였다.” 하였다.
세종실록 47권	1430.02.19.庚寅 (세종12년)	“제단의 제도는, 단상(壇上)은 다만 신위(神位)와 전찬(奠饌)만 설치할 뿐이고, 단 아래는 모든 음악을 진설하는 곳이 될 것이니, 모두 두 개의 낮은 담[墪]을 설치하여【유(墪)는 제단의 둘레에 쌓은 낮은 담이다. 정단(正壇) 밑에 낮은 단(壇)을 만든다.】당상(堂上)과 당하(堂下)의 구분을 분별하고, 등가(登歌)와 준소(樽所)의 자리와, 헌가(軒架)와 일무(佾舞)를 출장소를 참작하여 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 사직단 제도는 사방이 2장 5척, 높이가 3척, 단 아래에는 두 개의 낮은 담[墪]을 설치하여 모두 25보(步)로 한계를 삼았는데, 우리나라의 사직단은 단하(壇下)에 낮은 담[墪] 하나만을 만들고 위아래의 구별이 없는 까닭으로, 제사지낼 때에 등

3) 장지연, 앞의 논문, 122-136

		가(登歌)의 금슬(琴瑟)을 탈 처소와 당상(堂上)에서 집례(執禮)할 자리를 베풀 곳이 없게 되어, 집례(執禮)와 공인(工人)이 모두 제단(祭壇) 신위(神位)의 앞으로 오르고, 준소(樽所)도 단상(壇上)에 설치하게 되어, 예(禮)를 행할 때 터가 좁고 너무 가까워 옛날 제도와 매우 어긋나 예(禮)와 악(樂)이 모두 정도(正道)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50권	1430.12.08.甲戌 (세종12년)	예조에서 “각도의 단유(壇壝)체제가 일정하지 않고 담 쌓지 않은 곳도 있어 더럽혀 지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제사의식[諸祀儀式]을 보면, 대사[大祀]인 사직단은 사방 2장(仗) 5척·높이 3척, 사방으로 낸 계단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壝]을 치고,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1431.11.05.丙寅 (세종13년)	황희·맹사성·허조 등이 사직신(社稷神)의 위패(位牌)에 쓸 칭호를 아뢰기를, “건국 초기에는 사직의 돌신주와 신의 위패를 《홍무예제》와 전조의 제도에 의거해 만들었고, 신의 위패에 ‘태사지신(太社之神)’·‘태직지신(太稷之神)’이라 썼습니다. 송나라 제도와 《홍무예제》와 건국 초기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신의 위판을 만들되, 제법에 의거하여 ‘국사지신(國社之神)’·‘국직지신(國稷之神)’이라 쓰고, 그 후토씨와 후직씨는 그전대로 배향하여 제사 지내게 하는 게 옳습니다. 또한 옛날 제도와 당나라 《개원례》와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돌로 사의 신주를 만들고, 직과 그 배위는 신주를 없게 하고, 제사지낼 때 신좌를 설치하여 신위를 대신하게 하고, 축문에 ‘국사’·‘국직’으로 쓰게 하는 게 옳습니다.”하니,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1432.01.19.己卯 (세종14년)	예조에서 아뢰기를, “국초의 사단 직유(社壇稷壝)의 제도에 미비(未備)한 것이 있으니, 따로 사단 직유를 쌓게 하고, 단의 넓이와 사면으로 나온 계단과 층계는 일체 옛 제도에 의거하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1432.07.25.辛巳 (세종14년)	대제학 정초(鄭摺)가 상서하기를, “당·송의 예는 천자의 제도이므로 단의 넓이가 50척이어서, 주준(酒樽)이 단 위에 있게 되고, 홍무(洪武)의 예는 주·현의 제도이므로 단의 넓이가 25척이어서, 주준이 단 아래에 있게 됩니다. 지금 사직단은 너비가 25척의 단으로 50척 단의 제도를 모방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직단은 너비가 25척뿐이니, 신위(神位)와 전물(奠物) 배설이 대개 10척이나 되고, 헌관(獻官)의 작헌위(酌獻位)와 집사(執事)가 왕래하면서 행례하는 곳이 대개 10척이 되니, 5척이 남았을 뿐입니다. 집례(執禮)까지도 당·송의 예에는 모두 단 아래에 있게 되고, 단 위에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의 단 위에 있게 하는 것은 어떠한 전기(典記)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종실록 57권	1432.09.01.丙辰 (세종14년)	집현전에서 아뢴 단유(壇壝)의 제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가부를 의논하였다. 1. 지금 유(壝)의 안의 동·서·남·북이 모두 10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협작하니,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사방이 15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2. 단의 높이는 3척인데 유(壝)의 높이는 2척 반이므로, 단·유의 높고 낮음이 가지런하지 않으니,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유(壝)의 높이도 단의 높이와 같이 3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3. 유(壝)의 재료는, 옛날 제도에 유(壝)의 빛갈과 모양을 논하지 않았으니, 그전대로 섬돌로 만들되, 다만 백색 석회(石灰)를 사용하여 틈을 바르지 말게 하자. 4. 단을 3급으로 나누자. 5. 단(壇)의 너비가 25척인데 두 단(壇)의 사이가 5척이니, 너무 가깝다. 6. 유문(壝門)이 6척 남짓하게 되어 좁으니, 2, 3척 넓히는 것이 어떻겠는가. 7. 유(壝)의 너비를 넓힌다면 유(壝) 밖이 좁아지니, 북쪽 밖의 원장(垣牆)도 넓히는게 어떻겠는가. 8. 유(壝) 밖의 원장은 사면에 모두 창(戟)을 벌여 놓은 홍문(紅門)이 있으니,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밖의 원장에는 북문에만 기와를 덮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9. 유(壝) 밖의 북문 안에 재청(齋廳)을 지어, 눈비 오는 날 행사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종실록 72권	1436.05.07.壬申 (세종18년)	의정부에서 “ 홍무예제의 사직 신패도(社稷神牌圖)를 상고해 보니 사직 신위판(社稷神位版)이 모두 위가 둥그오니, 사직 신패도에 의하여 다시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의주(儀註)가 편찬되었으며, 이후 『세종실록 오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사직단의 규모와 제례 방식 및 사직의 주변 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 명	날짜	내용
세종실록 65권	1434.07.27.壬寅 (세종16년)	예조와 상경소에서 사직에 기고(祈告)하는 의주(儀註)를 찬진(撰進)하였다.
세종실록오례		부록 참조
세종실록지리지		사직【인달방(仁達坊)에 있으니, 둘레의 담에 소나무를 심었다.】

문종대(1450-1452)에는 사직서에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를 두었으며, 의정부의 건의로 사직단에 제기를 보관할 창고가 건립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문종실록 7권	1451.04.17.乙酉 (문종1년)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사직서(社稷書)에 제조(提調)를 두지 않는 것은 미편하니, 종묘(宗廟)의 예에 따라 실제로 일을 살피는 도제조(都提調)를 두되, 좌의정(左議政)으로 이를 삼고, 또 제조 한 사람을 더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8권	1451.07.20.丙辰 (문종1년)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보궤(篋篋)·준뢰(樽罍) 등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집사(執事)의 방에 놓아두는 것은 참으로 불가합니다. 창고를 지어 보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대(1455-1468)에는 사직서의 관제가 다시 한 번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사직서의 겸승(兼丞)이 없어지고 서령(署令)이 배치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세조실록 38권	1466.01.15.戊午 (세조12년)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였다. 사직서(社稷書)는 겸승을 없애고 서령(署令)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종5품이다.

성종대(1469-1494)에는 사직단 영역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1471년에는 의식이 끝난 뒤 폐백과 축판 등을 묻는 구덩이인 감(坎)의 위치를 담 안쪽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491년에는 사직의 제기를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기를 보관할 창고를 증축하고, 보관용 장롱을 설치하였다. 1494년에는 임금의 지시로 사직단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역시 임금의 지시로 사직단에 비를 피할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성종실록 11권	1471.08.03.癸卯 (성종2년)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주자사직단설(朱子社稷壇說)》에, ‘예감(壓坎)은 제단(祭壇)의 북쪽 임방(壬方)으로 한다.’ 하고, 그 주(註)에, ‘예감이 제단의 임방에 있다는 것은, 바로 북쪽 토담[北壇] 안의 양쪽 제단 가에 각각 중앙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직단(社稷壇)을 보건대, 양쪽 제단의 북쪽 토담 문 밖의 서북쪽 모퉁이에 구덩이를 파니, 옛날 제도가 아닙니다. 청컨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북쪽 토담 안의 제단 가에다 고쳐 설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51권	1491.03.27.癸卯 (성종22년)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제기도 옛날 제도(制度)에 맞지 않으며, 경결하지 않고 깨지거나 훼손된 것이 있으면, 아울러 고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사직 제조(社稷提調)로 하여금 그것을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2권	1491.04.11.丙辰 (성종22년)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사직 제조(社稷提調)로서 제기(祭器)를 감독하여 주조(鑄造)하였습니다. 제기를 간직하는 곳은 단지 한 칸(間)뿐이며 판자를 늘어놓을 곳도 없으니, 두어 칸을 더 짓고 장롱을 설치하여 간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하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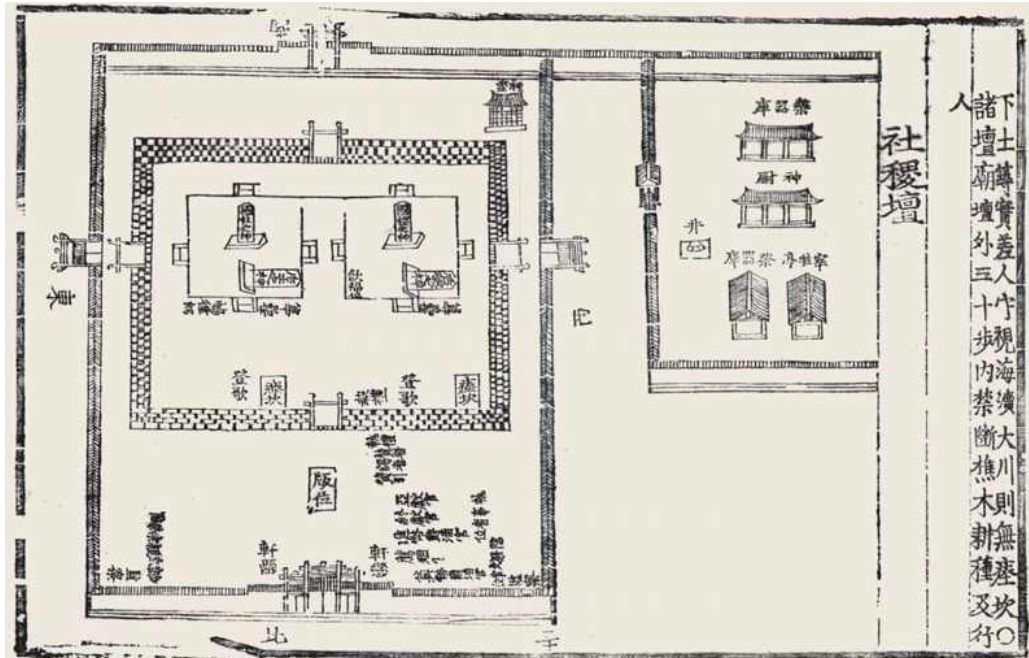
성종실록 286권	1494.01.27.丁巳 (성종25년)	“사관(史官)을 보내어 사직단을 그려 오게 하라.” 하니, 검열(檢閱) 강덕유(姜德裕)가 사직단 자리에 나아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성종실록 287권	1494.02.10.己巳 (성종25년)	“사직단에는 사우(祠宇)가 없으니, 비나 눈 내리는 날에 모든 집사(執事)들이 의복을 적시지 않겠느냐?” 하매, 승정원에서 “집사(執事)가 배위(拜位)에서는 사람이 우산을 받도록 하지만, 단상(壇上)을 오르내릴 때는 우산을 제거합니다.” 하니, “금후에는 우구(雨具)와 유둔(油氈)을 설비하여 옷을 적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한 사직단에서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1473년에는 사직 담 밑에서 기생과 공인을 데리고 활을 쏘고(射侯)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소나무를 밟아 손상시킨 형조좌랑 김민에 대한 추국의 논의가 있었다. 1490년에도 사직 부근에서 무례하고 거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발하도록 하는 전교가 있었다.

권 명	날짜	내용
성종실록 29권	1473.04.26.丙戌 (성종4년)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형조좌랑 김민 등이 기생과 공인(工人)을 데리고 쇠고기와 술을 많이 준비하여, 사직(社稷)의 담 밑에서 사후(射侯)하며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심은 소나무를 밟아 손상시켰는데, 춘천부수(春川副守) 이효돈(李孝敦)이 와서 금하자 도리어 욱하고 꾸짖었으니, 추국(推鞠)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37권	1490.02.26.戊申 (성종21년)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에는 늘 사람을 보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피고 있으나, 사직서(社稷署)·소격서(昭格署)·독소(蠹所) 또한 제향(祭享)을 드리는 곳인데, 설만(褻慢)한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사람을 보내어 간악한 일을 적발(擿發)토록 하라.” 하였다.

이 시기에 조성된 사직단의 상황은 1474년에 작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사직단(社稷壇)」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도설(圖說)은 사직단 영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이 그림의 사직단은 단(壇), 유원(壇垣), 주원(周垣) 및 제기고(祭器庫) 일곽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은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양단을 둘러싸는 담장인 유원과 이 유원의 4방위에 유문(壇門)이 배치되었고, 북유문 안쪽 좌우에는 폐백과 축판 등을 묻는 구덩이인 감(坎)이 각각 1개씩 배치되었다. 이 유원의 외곽은 주원으로 둘러싸였는데, 유원과 마찬가지로 4방위에 홍살문 형식의 주문(周門)이 있으며, 북주문(北周門)만 삼문형식으로 되어 있다. 북주문 안쪽으로는 왕이 제사를 올리는 판위(版位)가 놓여 있다. 유원 밖 서남쪽에 주원 안쪽으로는 신실(神室) 1동이 있다. 그리고 주원 밖 서편에 따라 일곽이 형성되어, 중문을 들어서면 마당에 우물이 있고, 북에서 남쪽으로 재생정(宰牲亭), 제기고(祭器庫), 신주(神廚), 악기고(樂器庫)가 배치되었다.⁴⁾

4) 문화재청, 『사직단 정문 :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80쪽



사직단(社稷壇), <<국조오례의>>, 1474년

연산군대(1494-1506)에는 건국 초기에 쌓아 무너진 사직단의 담장을 보수하고, 사직 주변에 담장과 면하여 지어진 집들을 철거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연산군일기 29권	1498.06.14. 己卯 (연산군4년)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노사신·구수영(具壽永)이 아뢰기를, “사직의 담장이 건국 초기에 쌓은 것이라서, 모두 낮고 무너졌으므로, 수축하소서. 또 담장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담장과 연대어 집을 지은 자가 있어 너무나 설만(褻慢)한 듯하오니, 아울러 철거하게 하옵소서.” 하니, 왕은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1506.01.08. 戊子 (연산군12년)	전교하기를, “내일은 마땅히 친히 성터를 살펴볼 것이니, 이전(李諡)의 집 앞길 이복과, (중략) 사직(社稷)에 이르는 이복의 인가는 전부 몰아 내라.” 하였다.

중종대(1506-1544)에는 사직단에 경비와 관리를 위한 수복(守僕)을 상시 배치하여, 사직단을 지키도록 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중종실록 25권	1516.06.28. 戊寅 (중종11년)	정월에 전교하였다. “종묘(宗廟)·사직(社稷)·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영경전(永慶殿)의 수복(守僕)이 상시에 수직하는 것이 허술하고 밤에 순경(巡更)하지 않으므로 뜻밖의 변이 있게 되니, 이제부터 밤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순경하고 무사한지를 그 곳 관원에게 고하도록 하고, 수복 등의 자리가 비는 대로 간택하여 차경(差定)하는 것이 옳으리라.”

2) 조선후기 : 사직단의 복설과 운영

선조대(1567-1608)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발발로 임금이 피난길에 오르며 종묘와 사직의 신주가 옮겨지고 사직단 영역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불가피할 경우 동궁(東宮)이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봉안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으로 신주와 함께 대가(大駕)가 서북방으로 순행하여 5월 개성의 목청전(穆淸殿) 안에 안치되었고,⁵⁾ 6월 왕세자 일행이 사직 신주를 모시고 강계(江界)로 출발하였다. 『사직단 정문 : 실측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6월 왕세자 일행이 사직 신주를 해주의 행재소(行在所)에 임시 봉안하였다가, 1593년 서울로 모셔왔다고 하지만,⁶⁾ 실록 기사에 따르면 1593년 왕세자 일행은 신주를 모시고 정주(定州)를 출발하여 가산군(嘉山郡)에 머물렀다가 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원래 사직단 영역의 단유(壇壝), 신주실(神主室), 전사청(典祀廳), 풍물고(風物庫) 등이 훼손되어, 사직 신주는 고(故) 장흥군(長興君)의 집에 임시로 모셔졌으며, 1954년 9월까지도 사직단 영역의 보수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실이 간략하게 영건되어 사직 신주가 재봉안되었으나, 정유재란으로 다시 황해도 수안으로 이안되게 되었다.⁷⁾ 1597년 임금과 동궁이 한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잠시 종묘와 사직의 신주가 아직 미봉환된 시기가 있었는데, 사헌부와 예조의 의론이 반발하여 마침내 같은 해 10월에 환도하였다. 하지만 겨우 신실에 신주를 봉안하였을 뿐 당시 사직단 주변은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이 때 예조에서는, 나라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지면 안 되고, 단 하루만 성 밖으로 나가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아뢰었다. 다음의 실록 기사들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권 명	날짜	내용
선조실록 26권	1592.05.10.己巳 (선조25년)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를 개성에서 받들고 와서 영송전(永崇殿) 좌우 협실(左右夾室)에 봉안했다. 대신이 제관을 보내어 위안제(慰安祭)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선조실록 27권	1592.06.14.壬寅 (선조25년)	상이 영의정 최홍원, 참판 윤자신(尹自新) 등에게 명하여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세자를 배종하여 강계(江界)로 가서 보전하도록 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나누어 세자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상이 문밖으로 나와 말을 타고 박천(博川)으로 떠날 무렵에 (하락)
선조실록 34권	1593.01.20.乙亥 (선조26년)	상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사직(社稷)의 신주를 전알(展謁)하고 전후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또 종묘 신주에 곡림(哭臨)하고 전후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35권	1593.02.17.壬寅 (선조26년)	대가(大駕)가 정주(定州)를 출발하여 가산군(嘉山郡)에 머물렀다. 동궁(東宮)으로 하여금 그대로 머물면서 종묘 사직을 받들게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1594.02.09.戊午 (선조27년)	좌찬성 최황(崔滉)이 아뢰기를, “이른바 사직이란 곳을 보니 고(故) 장흥군(長興君)의 집이었습니다. 돌 가운데 제단을 세웠는데 지세가 낮고 평상시에 인마(人馬)가 밟고 다니던 더러운 곳으로서 존신(尊神)을 공경하는 뜻이 전연 없었습니다. 들건대 본래 사직 자리에는 단유(壇壝)가 완연하고, 신주실(神主室)·전사청(典祀廳)·주방·풍물고(風物庫) 등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옛터를 수리하여 경결하게 제사지내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해 처리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5) 문화재청, 앞의 책, 65쪽

6) 문화재청, 앞의 책, 65쪽

7) 문화재청, 앞의 책, 65쪽

선조실록 55권	1594.09.10.乙酉 (선조27년)	좌찬성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유허(遺墟)를 봉심(奉審)하였는데, 구단(舊壇)이 아직 있었는데 간가(間架)와 담장은 잔파되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해조가 우찬성 최황(崔滉)의 서계로 수리할 공사(公事)를 만들어 계하받았다고 하지만 2월의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고친 곳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무너진 데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거행하려면 역역(力役)이 모자랄 듯합니다. 또 종묘(宗廟)도 아직 수리하지 못했는데 먼저 사단(社壇)의 간가를 일일이 수습(修葺)하는 것은 때가 아닌 듯도 합니다. 종묘가 다 수리되면 조종(祖宗)의 구업(舊業)을 복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81권	1596.10.07.庚午 (선조29년)	“신은 일찍이 사직(社稷)의 위패를 옛 단소(壇所)로 이안(移安)할 적에 이런 미안한 뜻을 아울러 서계(書啓)하였고, 나중에 연중(筵中)에서도 아뢰었다.”
선조실록 91권	1597.08.13.辛未 (선조30년)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직과 종묘의 신위(神位)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수직(守直)하였는가? 이와 같이 흥흥하고 위급한 때에 시위(侍衛)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믿을 만한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주아로 속직(宿直)하면서 이탈하지 말고 호위하도록 해야 한다.”
선조실록 92권	1597.09.12.己亥 (선조30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종묘와 사직이 옮겨지면 국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궁(東宮)이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떠나갔으니, 이것은 고금(古今)에 없는 큰 변입니다. 지금 동궁을 소환하시었다 하는데 종묘와 사직은 아직 봉환(奉還)하라는 명이 없으시니, 장차 종묘와 사직을 대신(大臣)에 맡기려 하시는 것입니까? 성상(聖上)께서 여기에 계시니 종묘와 사직을 하루라도 밖에 둘 수 없습니다. 속히 봉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 어떻게 도로 받들고 오겠는가. 어려울 것 같다.”하였다.
선조실록 92권	1597.09.13.庚子 (선조30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종묘와 사직을 도로 받들고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국가는 종묘와 사직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참으로 외방(外方)에 봉안(奉安)할 수 없습니다. 어찌 받들고 오는 것을 어렵게 여겨 봉안해서는 안 될 지역에 그대로 봉안하십니까. 속히 받들고 돌아오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일은 이미 의논해서 처리한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1597.09.16.癸卯 (선조30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동궁(東宮)을 소환(名還)하면서 종묘와 사직은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그대로 봉행하게 하니, 과연 대신이 봉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상(聖上)께서는 여기에 계시고 종묘와 사직은 밖에 있으니,情理(情理)로 헤아려 보건대 속히 봉환(奉還)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종묘 사직에 대한 일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1597.09.17.甲辰 (선조30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종묘와 사직을 봉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논드린 것이 아직까지 윤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궁을 이미 소환하고서도 아직까지 봉환하라는 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1597.09.27.甲寅 (선조30년)	예조가 아뢰기를, “나라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만 성밖으로 나가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래에 왜적이 몹시 가까이 와 이렇게 부득이한 일을 하였지만, 왜적이 조금 물러가기만 하면 바로 봉영(奉迎)해 와야 하는데 중국 병사가 가득 차 봉안(奉安)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신묘(新廟)가 완공되기를 기다렸다가 봉영해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력(物力)이 고갈되고 백성들도 모이지 않으므로 부득이 병조(兵曹)로 하여금 징병(徵兵)과 도방군(到防軍)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그 숫자대로 뽑아 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큰 역사(役事)를 얼음이 얼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묘(新廟)의 문 밖에 내관(內官) 방준호(方俊豪)의 집이 있으니 이 집을 수리하여 어실(御室)을 삼을까 합니다. 종묘와 사직을 일로(一路)의 협소하고 누추한 여염집에 봉안하였다고 하니, 차라리 방준호의 집을 수리하여 임시로 봉안하였다가 묘역(廟役)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봉안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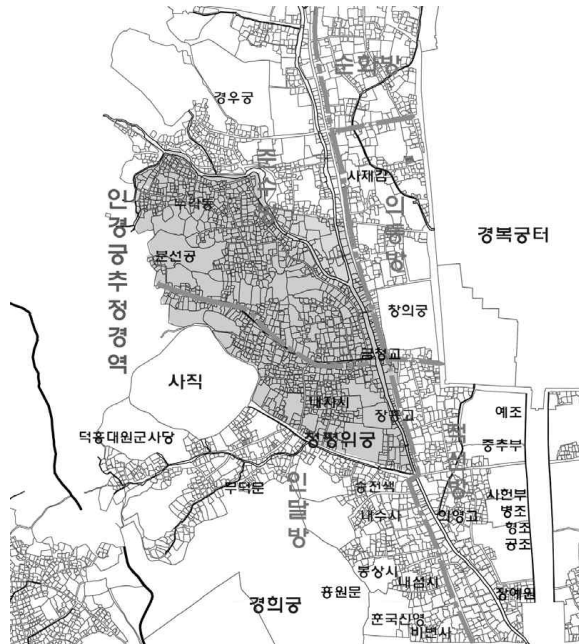
1597년 10월 사직의 신주가 사직단 신실(神室)에 다시 봉안되었으나, 당시 사직단 주변은 담장이 철거되고 인가도 없었으며 소나무의 훼손도 이루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

다. 이후 제기 등 제사 물품을 새로 정비하고 부족한 인력을 동원하는 일이 있었고, 1607년에는 사직단 남·서·북면의 소나무가 충해를 입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성부의 방민(坊民)을 거느리고 벌레를 잡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광해군대(1608-1623)에는 사직단의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사직영건청(社稷營建廳)을 설치하고, 단문(壇門)과 유문(壘門)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광해군일기 27권	1610.03.28 癸酉 (광해군2년)	예조가 아뢰기를, “국사(國社)는 중요한 곳인데 단문(壇門)과 유문(壘門)이 모두 무너졌으니, 앞으로 친제(親祭)가 멀지 않아 속히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관원에게 맡겨 두면 전과 같이 안일하게 하여 완성될 리가 없습니다. 호조와 공조의 당상 각 1원(員)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사직영건청(社稷營建廳)을 설치하고, 부모(祔廟)한 뒤에 즉시 공사를 시작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군일기 35권	1610.11.20 辛酉 (광해군2년)	“사직단(社稷壇)의 수리 및 감독과 관계된 당상·낭청·하인·공장(工匠) 등을 모두 서계(書啓)하라.”

한편 광해군대에는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仁慶宮)과 경덕궁(慶德宮, 경희궁)이 영건되며, 사직단 주변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1616년 기사에 따르면 인경궁을 인왕산의 길한 터인 사직단 자리에 세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궁궐터는 사직단의 담장 바깥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617년 인경궁의 남쪽 담장이 사직의 담장과 연이어 있게 되어 순라길이 막히게 됨에 따라, 창덕궁·종묘와 같이 사직을 궁궐 담장 안에 포함시키거나, 사직단 북쪽 담장 안에 겹으로 담장을 쌓아 길을 뚫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사직단 남쪽 정원군(定遠君)의 옛집 터에 세워진 경덕궁은 사직단 영역과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특히 경덕궁의 북문이 사직단과 근접하였으며, 새로 지은 경덕궁에서 사직단 제사를 위해 임금이 행차하게 되었다.



사직단 주변 영역 추정도
(정정남, 『효종대 인경궁내 궁가의 건립과 그 이후 궁역의 변화』서울학연구, 39호, 2010, 192쪽의 그림 발췌)

권 명	날짜	내용
광해군일기 101권	1616.03.24 甲午 (광해군8년)	영의정이 아뢰기를, “이번에 인왕산 아래에다 터를 잡는 일은 중대한데, 그 말이 흠이 없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성지(性智)는 ‘인왕(仁王)이 길한 곳이니, 사직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 그 터에 궁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임금이 편안하게 지내면 사직 역시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옮겨야한다.’ 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크게 놀랐다. 이에 드디어 사단(社壇)의 담장 바깥에다 궁궐의 터를 정하였다.)
광해군일기 115권	1617.05.29 辛卯 (광해군9년)	선수도감이 아뢰기를, “새 대궐의 남쪽 담장이 사직(社稷)의 담장과 연이어 있어 순라도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사직을 궁궐 담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창덕궁과 종묘의 제도와 같게 한다면, 사직 남쪽 담장 밖

		이 바로 덕흥대원군(大院君)의 사우(祠宇)로, 사우를 이설하는 것 역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사직의 북쪽 담장 안에다가 또다시 겹으로 담장을 쌓아서 순라길을 뚫기로 운허 받았습니니다. 이에 지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사직을 높여 받드는 것이 중한데, 하루아침에 그곳의 초목을 베어내고 그 토지를 침범하는 것은 몹시 온당치 못하다. 그 땅을 침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원군의 사우를 옮겨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혹은 '사직의 담장은 예전대로 그대로 두고 신궐의 남쪽 담장을 조금 안쪽으로 들어서서 순라길을 열라.'고 합니다. 궁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쌓는다면 정전(正殿)의 뒤편이 몹시 좁아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감에서 상세히 의논해서 결정지어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 127권	1618.04.16.甲戌 (광해군10년)	신궐(新闕) 영건도감이 아뢰기를, "경덕궁(慶德宮)의 북문이 대내(大內)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순라가 통행하는 임무가 없어질 듯하다. 담 밖으로 더 내서 쌓으면서 외북문(外北門)을 만들어 세우면 일이 온당하겠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바깥 담 서북쪽에는 독송정(獨松亭)이 있고 정자 아래 작은 길이 돌아서 사직동으로 통합니다. 물려서 쌓을 경우, 바깥 담 서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송정을 따라 동쪽으로 권반(權盼)의 집에 이르고 윤유신(尹惟愼)의 집으로 돌아 올라가 내수사 동쪽 산과 연결된 뒤에야 대내와 근접하게 되는 염려가 없어지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북문이 대내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려서 쌓으라는 것이지, 인가를 많이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광해군일기 169권	1621.09.02.庚子 (광해군13년)	"사직단 제사를 신궁에서 지내게 되어 밤에 거동하니, 호위를 엄밀히 해야 한다. 새로 설치한 좌우 포도대장은 경덕궁과 사직단 내외 근처를 나누어 지키면서 각별히 살피라."

인조대(1623-1649)에는 1636년 청나라의 침입으로 임금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와 함께 피난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출발한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고, 먼저 출발한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강화에 옮겨졌다. 1637년 1월 청나라 군대가 강화를 함락하자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남한산성을 거쳐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에 봉안되었고, 5월에 이르러 본래 자리에 봉안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사직서의궐 3권 경란사실(經亂事實)	1636.丙子	12월 10일에 청나라 군사가 갑자기 경성(京城)에 밀어닥쳤다. 14일 아침에 먼저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강화(江華)로 옮겨 들었다. 오시(午時)에 대가(大駕)가 이어서 출발하여 송례문에 이르렀는데, 청나라 기병(騎兵)이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곧 바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15일 저녁에 산성이 포위되었다.
사직서의궐 3권 경란사실(經亂事實)	1637.丁丑	1월 22일에 청나라 군사가 갑곶(甲串)을 건너 강도(江都)를 함락하였다. 29일에 신주를 받들고 남한산성 아래에 이르렀다. 이윽고 대가가 환도하여 창경궁에 나아가 임시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시민당(時敏堂)-동궁(東宮)의 서연(書筵) 장소이다.에 봉안하였다.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옮겨 봉안할 길일을 5월 6일 묘시로 하는 것으로 계하받았다.

또한 병자호란 발발 이전 큰 바람으로 사직단 영역 안의 많은 오래된 나무들이 입을 피해를 기록한 기사를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권 명	날짜	내용
인조실록 31권	1635.07.13.辛酉 (인조13년)	큰 바람이 아침부터 종일토록 불다가 다음날에야 그쳤다.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사직과 종묘 안에 있는 고목(古木)이 꺾이고 뽑힌 것이 60~70그루이며, 여러 능의 나무가 부러지고 뽑힌 것도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숙종대(1674-1720)에는 사직단에 재전(齋殿)을 마련하고, 임진왜란 후 선조대에 지어진 신실(神室)을 개축하는 등 사직단 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었다. 기존에 사직단 제사를 위해 임금은 임시 거처인 장전(帳殿)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으나, 1681년 사직서관원이 숙직하는 집을 재전(齋殿)으로 삼도록 하였고, 이후 ‘재소(齋所)에 나아가 잤다.’ 혹은 ‘임금이 장전에서 거쳐하여, 신하들이 재실로 옮겨 거쳐하기를 청하였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재전이 건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약 100년 전에 건립된 신실이 기울어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다시 짓도록 하였는데, 옛 제도를 거스르는 일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계속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1712년과 1720년에 큰 바람이 불어 신실의 갈대밭이 찢어지고 신문(神門)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숙종실록 11권	1681.05.17. 己巳 (숙종7년)	임금이 사직단 재소(齋所)에 나아가갈 때 구례(舊例)에는 장전(帳殿)에서 하룻밤을 유숙(留宿)하였는데, 약방(藥房)에서 옥체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 본서(本署)의 관원이 숙직(宿直)하는 집을 재전(齋殿)으로 삼을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숙종실록 27권	1694.09.22. 丁亥 (숙종20년)	사직의 신실(神室)이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어졌는데, 대신들과 의논하여 다시 지으라 명하였다. 드디어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숙종실록 27권	1694.09.27. 壬辰 (숙종20년)	부사직(副司直) 김세익(金世翊)이 “사직의 신실(神室)을 다시 짓는 것은, 고요하게 하기를 숭상해야 하는 의리에도 어긋나거니와 또한 시기가 아니라는 기룡이 있으니, 1백 년이 된 옛 제도를 급작스럽게 무너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天災)가 매우 심한 참이라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니,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신실을 다시 짓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다.” 하였다.
숙종실록 36권	1702.02.05. 丁巳 (숙종28년)	임금이 사직단의 추향(秋享)을 행하려고 재소(齋所)에 나아가 잤다.
숙종실록 46권	1708.05.24. 己亥 (숙종34년)	임금이 보련(步輦)으로 납시어 사직단에 나아가 하루동안과 밤새도록 장전(帳殿)에 그대로 거쳐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재실(齋室)에 옮겨 거쳐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숙종실록 51권	1712.02.11. 甲子 (숙종38년)	사직의 신실(神室)의 4면의 갈대 밭이 모두 큰 바람에 찢기고, 단(壇) 북쪽의 신문(神門) 3칸(間)이 모두 주춧돌째로 쓰러져서 부서졌다.
숙종실록 65권	1720.03.01. 戊辰 (숙종46년)	사직단의 신문(神門)이 무너졌다. 이날 서울과 지방에 큰 바람이 불어 사직단의 신문 3칸이 넘어져 부서졌고 주춧돌이 모두 뿔뿔히 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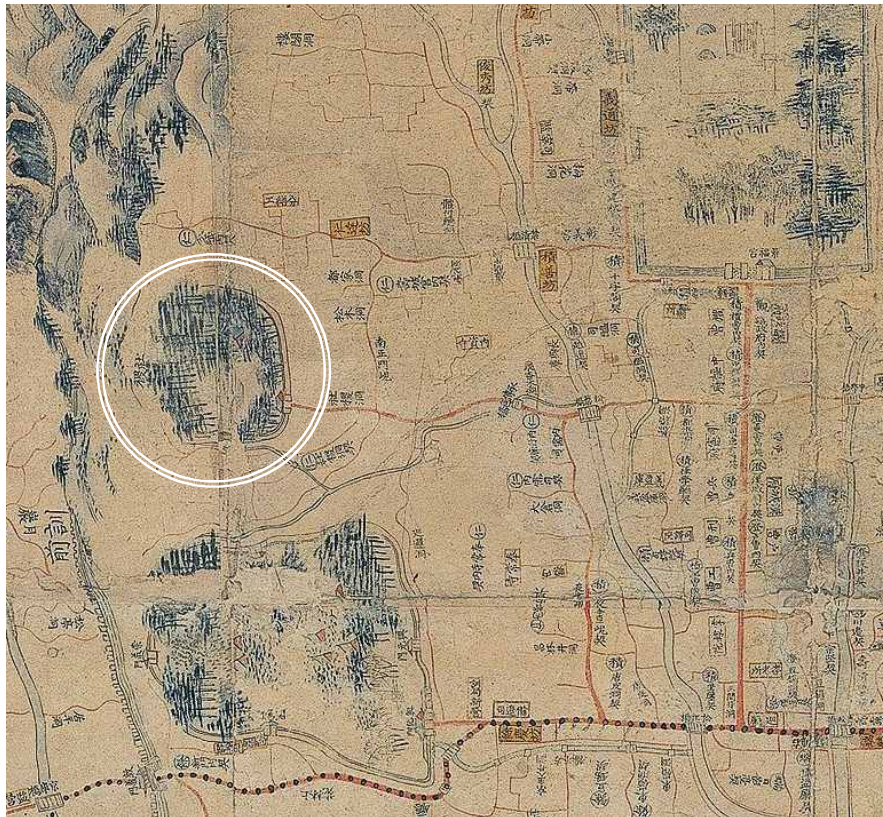
이러한 사직단 내 건축물 공사와 함께, 사직단 등에 식재된 소나무의 충해를 막기 위해 백성을 동원하여 벌레를 잡도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권 명	날짜	내용
숙종보궐정오17권	1686.04.12. 乙丑 (숙종12년)	송충이가 사직(社稷)의 솔잎을 먹었는데, 서울 백성을 동원하여 이를 잡게 하였다.
숙종실록 18권	1687.09.12. 丁亥 (숙종13년)	예조(禮曹)에서 서울 주변의 산과 사직(社稷) 및 각릉(各陵)의 솔잎을 벌레가 먹는 것을 이유로 백성을 시켜 잡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직단 영역의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社稷’이라고 표기된 사직단 영역의 내부에는 뾰뾰하게 들어선 나무가 표현되었다. 제단은 중심부에 공터로 표현되어있으나 부속건물은 나무숲 사이로 간간히 보이도록 표현될 정도로, 나무숲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성대지도>가 제작된 시기는 숙종대보다 백여 년 후의 일이지만, 당시 사직단 영역 내부의 소나무 숲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도성대지도’(18세기 후반)의 부분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18세기 후반

한편 사직단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1704년 창덕궁 안에 대보단(大報壇, 皇壇)이 준공되었다. 대보단의 단(壇)은 사직단과 같이 사방 25척의 너비로 계획되었으며, 유(壝)·장(牆)이 설치되었다. 담장 높이는 사직단보다 1척이 높은 4척이었고, 유의 너비는 사직단의 150척(25보)보다 좁은 37척이었다. 이외에 제사 의식도 사직단의 것이 바탕이 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숙종실록 40권	1704.10.14.辛巳 (숙종30년)	예조참판(禮曹參判) 김진규(金鎭圭)가 황단(皇壇)의 높이, 너비와 제사 지내는 의식을 임금 앞에서 품정(稟定)하였다. 너비는 우리나라의 사직단(社稷壇)에 의하여 사방 25척으로 하고, 높이는 중국의 사직단에 따라 5척으로 하고, 등가(登歌)·헌가(軒架)는 사직단(社稷壇)의 제도를 본받도록 하였다.
숙종실록 40권	1704.12.21.丁亥 (숙종30년)	대보단(大報壇)이 준공되었는데, 단(壇)은 창덕궁 금원(禁苑)의 서쪽 요 금문(曜金門) 밖 옛날 별대영(別隊營)의 터에 있었다. 단의 제도는 우리나라 사직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壘)·장(牆)이 있는데, 담장 높이는 4척(尺)으로서 사직단에 비하여 1척이 높고 사방 넓이가 25척이며 네면에 모두 9급의 층계(層階)가 있었다. 유(壘)·장(牆)의 네 면은 모두 37척이요, 단소(壇所)로부터 외강(外牆)을 쌓아 행인이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숙종대에는 사직서(社稷署)를 사직전(社稷殿)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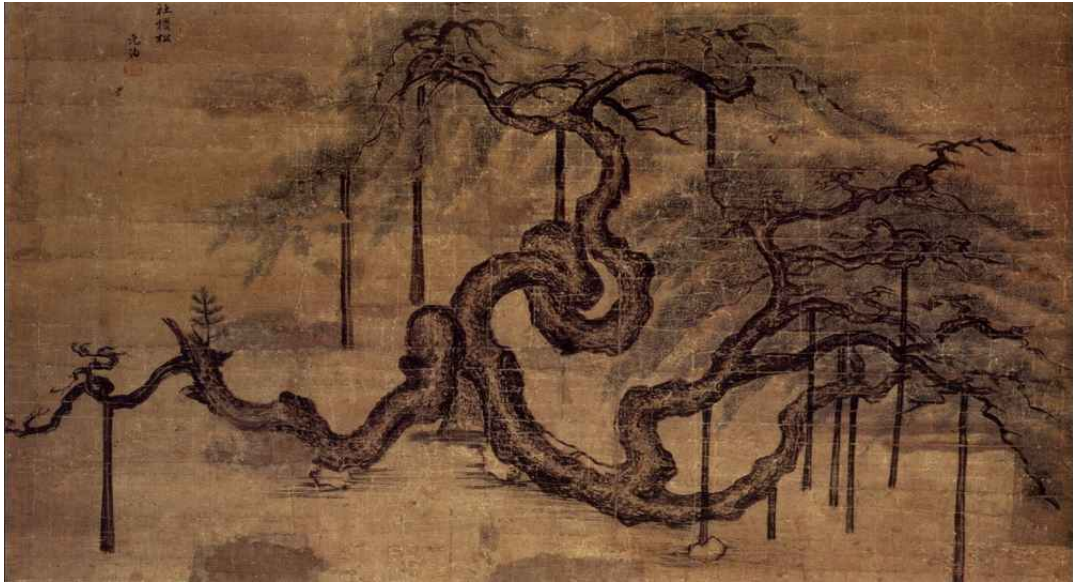
권 명	날짜	내용
숙종실록 47권	1709.06.29.戊辰 (숙종35년)	종묘직장(宗廟直長) 이상휴(李相休)가 상소하기를, “종묘서(宗廟署)와 사직서(社稷署)를 ‘서(署)’라고 명칭하여 혜민서(惠民署)와 전사서(典祀署)의 사이에 동등하게 하고 차례를 시감(寺監)과 창고(倉庫)의 아래에 거꾸로 해놓은 것은 일이 잘못된 것이니, ‘서’를 전(殿)으로 고치고 전액(殿額)도 걸게 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마음에 항시 미안스러워 한 번 시정하고 싶었다.”하였다.

영조대(1724-1776)에는 『사직서의궤』에 의하면 사직단 영역의 부분적 보수가 많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⁸⁾ 실록에는 그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직단에 관련된 다양한 언급이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직단의 소나무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직단 곁의 노송(老松)에 대해 숙종이 읊은 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사직단의 소나무가 매우 이름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사직노송도》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권 명	날짜	내용
영조실록 37권	1734.01.05.壬午 (영조10년)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기 위해 행사(行事)하는 즈음에 예문관(藝文館)의 의막(依幕)에 불이 나서 사직단(社稷壇) 곁의 소나무에까지 언급(延及)되었다.
영조실록 42권	1736.09.02.癸巳 (영조12년)	역관(譯官)이 숙종(肅宗)의 어필(御筆)을 진헌하였는데, 사직단(社稷壇) 곁에 있는 노송(老松)에 대해 읊은 시였다.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내가 이 시에 대해 삼가 차운(次韻)한 것이 있다.” 하니, 승지 남태온(南泰溫)이 선조의 어제에 각부(刻附)하여 목판으로 만들어 걸어 놓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58권	1743.10.09.戊午 (영조19년)	비와 우박이 내리고, 또 사직단(社稷壇)의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8) 문화재청, 앞의 책, 65, 73-75쪽



사직노송도, 정선(1676-1759), 고려대학교박물관

한편 대보단의 재실 영건 문제를 논의하며, 사직단 재실의 규모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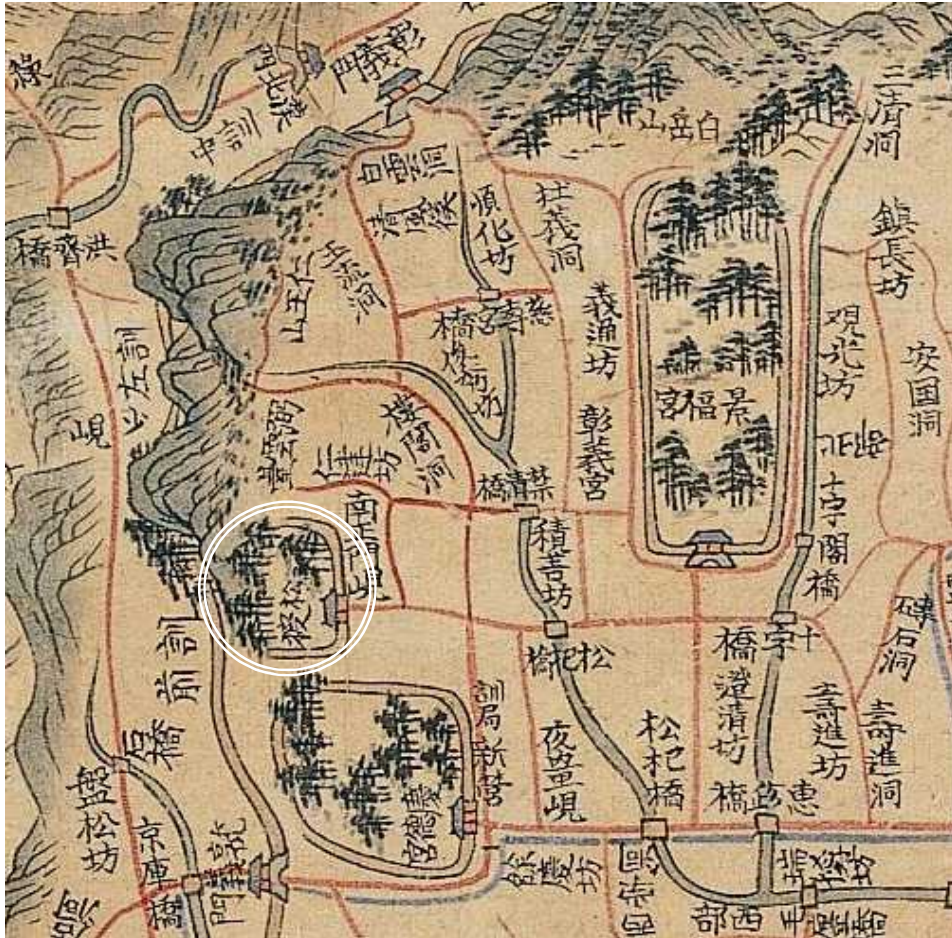
권 명	날짜	내용
영조실록 61권	1745.03.05.丁丑 (영조21년)	호조판서 서종옥(徐宗玉)이 말하기를, “세 칸은 제도의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사직단(社稷壇) 재실처럼 좌우의 방(房) 각 두 칸씩으로 하고, 청사(廳事)를 네 칸으로 한 연후에야 규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 칸 길이에 두 칸 넓이로 하여 가운데 두 칸을 청사로 하면 된다.” 하였다.

또한 영조는 사직단에 제기를 간직하는 곳을 만들도록 하거나, 사직단의 희생(犧牲)을 살펴보도록 명하는 등, 제사 의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영조실록 69권	1749.06.27.癸卯 (영조25년)	임금이 제기를 간직하는 곳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황단(皇壇) 및 사직에 장롱을 만들어 제기를 간직하도록 명하였는데, 종묘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임금이 선조(先祖) 받들기에 정성을 다하여 일마다 공경을 이룸이 이와 같았다.
영조실록 79권	1753.05.25.庚辰 (영조29년)	임금의 사직단에 거동하여 단상(壇上)을 봉심(奉審)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았다.
영조실록 113권	1769.08.08.丁巳 (영조45년)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예방 승지에게 명하여 사직단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 시기의 사직단 영역의 모습은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60년대에 제작된 〈한양도(漢陽圖)〉는 사직단이 표현된 이른 시기의 지도이다. 사직단 영역은 경복궁 앞 육조거리에서 서쪽으로 뻗은 길과 연결되었으며, 이 길은 당시 한양의 북서부 지역의 동서방향 간선도로의 하나로 해석된다. 사직단 북동쪽으로는 남정문현(南正門峴)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사직단 정문 북쪽에 있는 고개로 현재 천주교 세종로 성당이 있는 자리를 가리킨다. 사직단 남쪽으로는 경덕궁(慶德宮, 후의 경희궁)이 근접하여 위치하였다. 사직단과 경덕궁을 연결하는 남북도로 사이 서쪽으로는 수도의 수비를 맡아보던 훈국(訓局, 훈련도감)이 표시되었다. 담장으로 둘러싸여진 사직단 권역이 길과 만나는

곳에는 동쪽을 정면으로 하는 정문이 표시되었다. 담장 내부에 단(壇)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담장 내부 서편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양도(漢陽圖), 17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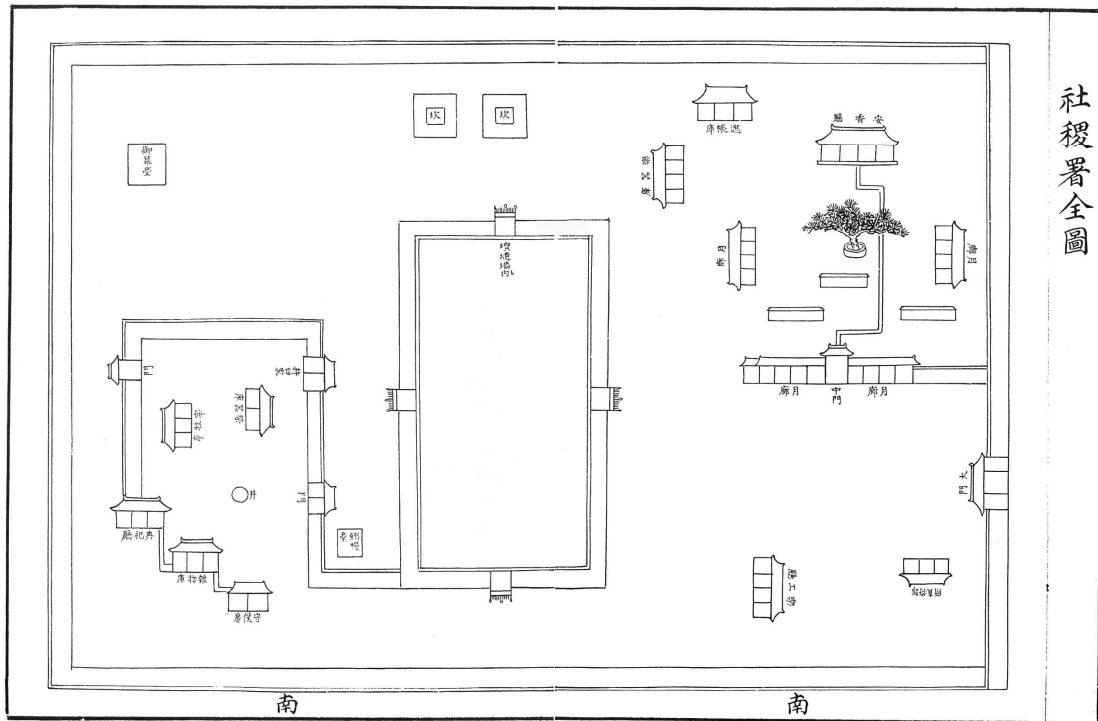
정조대(1776-1800)에는 임금이 사직서의 제도가 정리되어 있지 못함을 알고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1783년 1월 임금이 사직서를 방문하여 상고할 문적(文跡)을 가져오라는 명을 내렸으나 『등록(騰錄)』 3권만을 가져오자, 이를 열람하고 의식, 제단, 관사 및 유래에 대한 의궤를 편찬하도록 명한 것이다.⁹⁾ 또한 1785년에는 부주군현의 사직단의 관리와 제사에 관한 내용도 의궤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권 명	날짜	내용
정조실록 6권	1778.12.02.戊午 (정조2년)	임금이 사단(社壇)에 나아가 직접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다시 재전(齋殿)에 나아가 단사(壇司)를 소견하였다.
정조실록 11권	1781.01.05.戊寅 (정조5년)	임금이 사직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지내려고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고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사관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유문(埧門) 안을 전혀 수리하고 깨끗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입직관(入直官) 홍윤호(洪允浩)를 태거(汰去)시키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중중

9) 오세욱, 김기빈, 『사직서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012, 45쪽

		감처(從重勘處)하도록 명하였다.
정조실록 11권	1781.01.07.庚辰 (경조5년)	임금이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생기(牲器)를 살피고, 드디어 재숙(齋宿)하였다.
정조실록 15권	1783.01.08.庚子 (경조7년)	임금이 사직서 영 윤광호(尹光濩)를 불러 보고 사직서의 의궤(儀軌)를 가져오라고 하자, 윤광호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사직서의 제거(提擧)에게 명하여 제사지내는 의식·제단·관사 및 유래된 사실을 종류별로 나누어 편찬해서 사직서에 비치해 두라고 명하였다.
정조실록 19권	1785.01.02.壬子 (경조9년)	하교하기를, “일찍이 선왕조(先王朝)에서 지방 고을들의 사직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 번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었다. 근래 들으니, 여러 도에서 사직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제단을 둘러싼 담은 떨어져 나가고 홍살문(紅箭門)은 허물어졌으나, 수령(守宰)들이 여러 성황당(城隍堂)의 제단같이 여기므로, 너무나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땅으로 하여금 나무하고 소 먹이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니, 해당 조로 하여금 거듭 각 고을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게 하여, 사직단을 보수하여야 마땅할 데는 즉시 수리하게 하고, 각각 지키는 군사를 두고 경계 표식을 세워 잡인들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라. 매달 월말에는 사직단에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문(營門)에 통보하고, 영문에서 예조[儀曹]에 전보(轉報)하여 근만(勤慢) 상황을 상고하게 하라. 이 밖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나 제품 같은 것은 판당(判堂)이 기록하여 한통의 비밀 관문을 제출하도록 하라. 이것에 의해서 준행하게 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은 한탄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서 이것을 사직서(社稷署)의 의궤(儀軌)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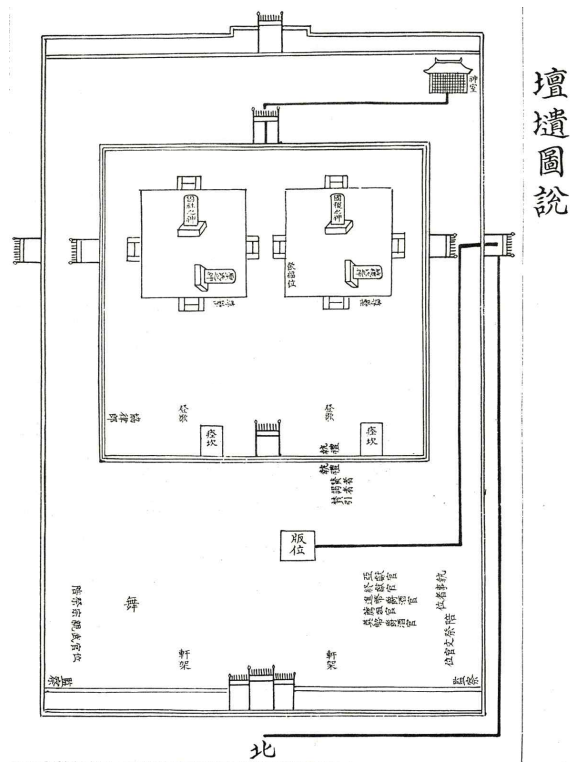
1783년 정조의 명으로 제작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 수록된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와 <단유도설(壇壝圖說)>에는 당시의 사직단 영역의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유도설은 사단과 직단이 있는 제단 영역만을 표현한 반면, 사직서전도는 제단 영역을 제외한 재실(齋室)과 부속시설 영역만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도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1783년

사직단 일곽의 사직서 배치를 그린 〈사직서전도〉를 살펴보면, 동쪽에 설치된 대문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영역이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대문 안쪽으로는 좌측에 부장직소(部長直所)와 악공청(樂工廳)이 있으며, 우측에 안향청(安香廳) 일곽이 나온다. 이 일곽은 월랑(月廊)으로 구성된 중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어도(御道)로 중문에서 안향청까지 연결되어 있다. 안향청은 남향하고 있으며, 앞마당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좌우에 동서로 부속건물이 각각 한 동씩 있다. 안향청의 서북쪽에는 남향한 차장고(遮帳庫)와 동향한 제기고(祭器庫)가 있다. 안향청 일곽의 서쪽으로는 4방위에 홍살문이 설치된 주원(周垣)이 있으며, 주원의 북쪽에 단북장문(壇北牆門)이라 표기된 북주문이 위치하였고, 그 북쪽으로 감(坎)이 각각 1개씩 놓여 있다. 그리고 주원의 서쪽으로는 사직단의 관리 및 제사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저구가(柞臼家), 재생정(宰牲亭), 제기고(祭器庫), 전사청(典祀廳), 잡물고(雜物庫), 수복방(守僕房), 우물 등으로 구성된 일곽이 나온다.¹⁰⁾

‘사직서전도’의 배치 양상을 《국조오례의》의 그림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직서 담장 안 북동쪽에 안향청 일곽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다. 안향청은 왕이 제사를 올리기 위해 임시 거처하였던 건물로,¹¹⁾ 사직서의궐의 기록을 통해 1694년 숙종대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¹²⁾ 또한 북주문 바깥으로도 감(坎)이 증설되었으며, 기존의 제기고 일곽에는 신주(神廚)와 악기고(樂器庫)가 없어지고 다른 시설들이 증축되었다.



단유도설(壇壝圖說), 《사직서의궐》, 1783년

《사직서의궐》의 〈단유도설〉에는 사직단의 주원(周垣, 제단 영역) 내부가 상세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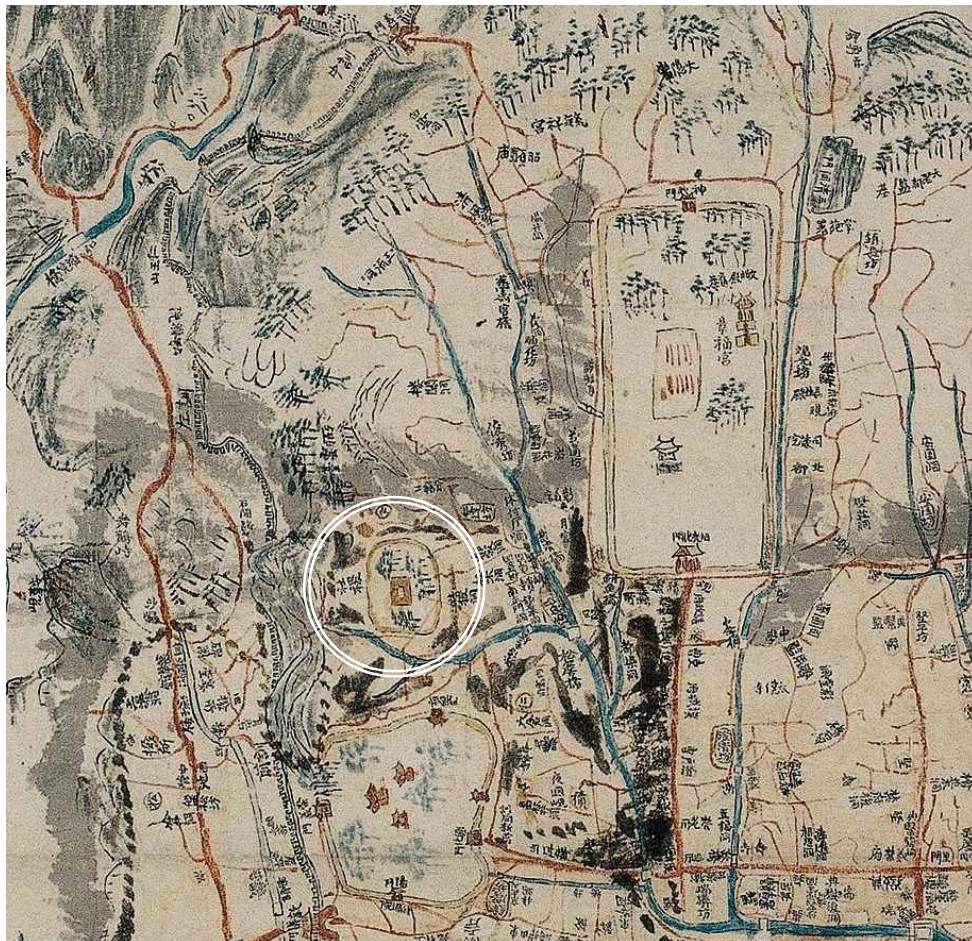
10) 문화재청, 앞의 책, 81쪽

11) 문화재청, 앞의 책, 81쪽

12) '오세욱, 김기빈, 『사직서의궐』, 한국고전번역원, 2012, 215쪽'의 '단유와 관사'편의 숙종 20년 10월 기록 참조.

그려져 있다.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국조오례의》의 내용과 유사하며, 판위(版位), 신실(神室), 문을 연결하는 어도가 추가로 표기되었다.

또한, 정조대의 사직단 영역의 모습은 1780년대에 제작된 〈한양전도(漢陽全圖)〉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담장으로 구획된 사직단 영역 내부에는 사단 및 직단의 제단 영역이 하나의 단으로 간소화되었지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며, 그 주변으로는 소나무들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담장 주변으로는 사직단 영역과 경희궁 사이를 가로지르는 물길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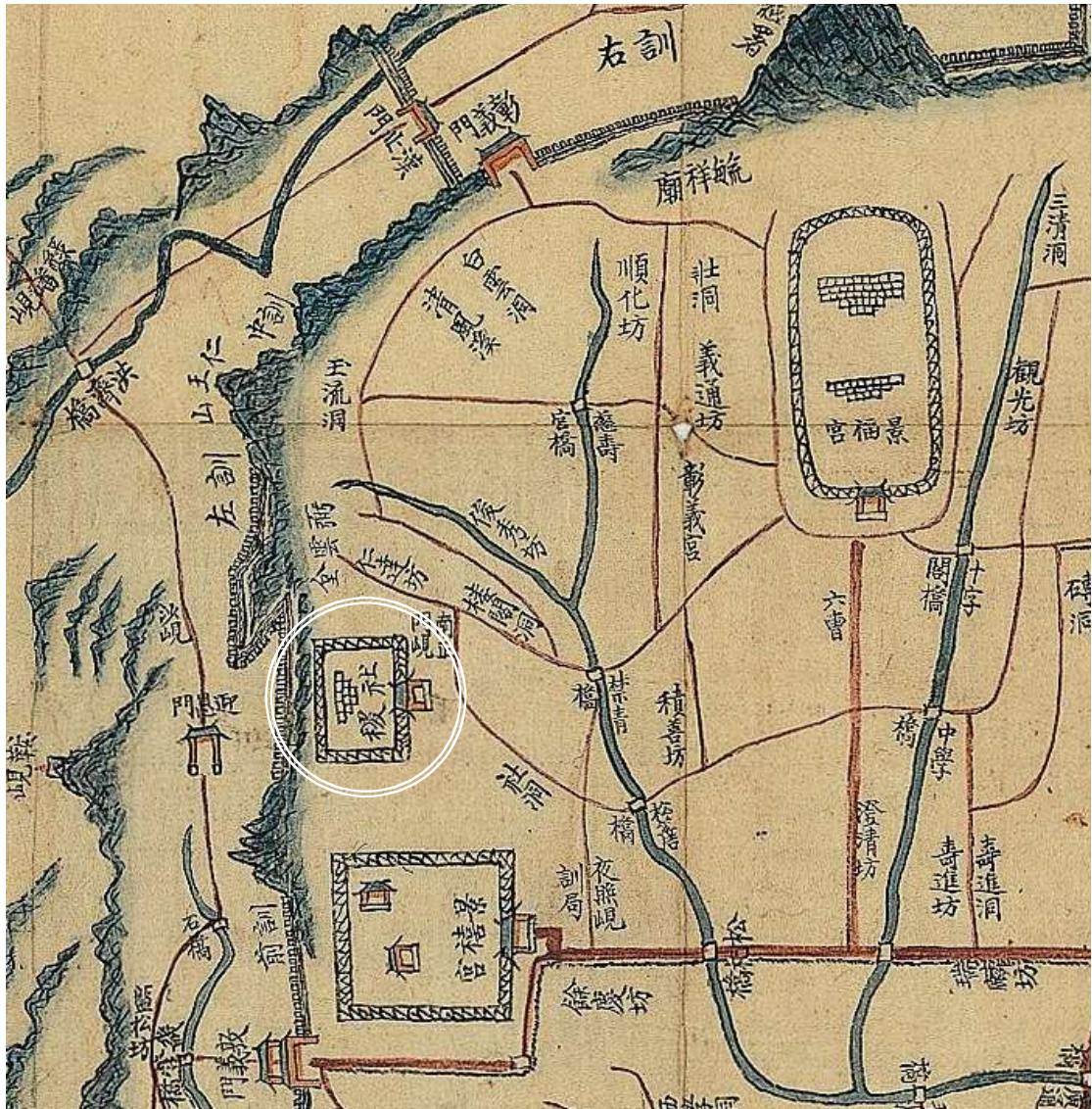


한양전도(漢陽全圖), 1780년대

이후 순조대(1800-1834), 헌종대(1834-1849), 철종대(1849-1863)에 이르는 기간

에는 사직단과 관련된 특별한 기사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현종대의 사직단 영역의 모습을 1830년에 제작된 <조선성시도(朝鮮城市圖)>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직단 영역의 담장은 사각형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반면, 제단 부분은 위로 좁아지는 3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현재의 제단은 장대석을 수직으로 세단을 쌓은 형태이지만, 석재로 제작된 제단을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조선성시도(朝鮮城市圖), 1830년

3) 대한제국기 : 제국의 제사시설로서의 사직단

고종대(1863-1907)에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며 사직단의 지위가 제국의 제사 시설로 격상되었다. 이에 앞서 1894년 갑오개혁, 1895년 을미개혁 등 관제의 전면적 개편 이후 사직단에 관련된 사무는 궁내부(宮內府) 장례원(掌隸院)에 이관되었다. 장례원은 궁중 의식과 제사 및 종묘와 사직, 전(殿)과 궁(宮), 능(陵)과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왕실 귀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이었으며, 사직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사직서제조(社稷署提調)를 두었다.

권 명	날짜	내용
고종실록 33권	1895.04.02. 癸卯 (고종32년)	장례원(掌禮院)【궁중 의식, 제사 및 종묘와 사직, 전(殿)과 궁(宮), 각 능(陵)과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종실(宗室) 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고종실록 33권	1895.05.25. 乙未 (고종32년)	종2품 김상규(金尙圭)를 종묘서제거 겸 사직서제거(宗廟署提舉兼社稷署提舉)에 임용하였다.
고종실록 34권	1896.12.09. (고종33년)	포달(布達) 제19호, <궁내부 관제 중 제조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提調改正件)>을 반포(頒布)하였다.【'사직서 제거(社稷署提舉)' 아래의 '종묘서 제거 겸(宗廟署提舉兼)'이라는 여섯 글자를 삭제하고 종묘와 사직, 전과 궁의 제거를 제조(提調)로 고친다.】
고종실록 40권	1900.09.08. (고종37년)	포달(布達) 제64호, <궁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사직서령(社稷署令) 1인을 2인으로 개정한다.】

당시 새로운 국가체계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절차를 줄이는 등 사직단의 제사의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문제시하여 예법(禮法)대로 다시금 바로잡는 일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새 역서(曆書)와 옛 역서의 날짜가 차이나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날짜를 옛 역서의 날짜대로 하는 방침이 이루어졌다.

권 명	날짜	내용
고종실록 34권	1896.03.08. (고종33년)	중추원 원외랑(中樞院員外郎) 강두흠(姜斗欽) 등이 올린 상소(上疏)에, “경장(更張)한 이후 새로 정한 전식(典式) 중에 서둘러 그전대로 복구할 것을 말한다면,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제사 의식 절차를 전에 비하여 줄인 것은 사전(祀典)을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태학(太學)은 수선(首善)의 장소인데 다시는 선비들을 길러내지 않으니 이것도 유교(儒敎)를 내세우는 기본이 아닙니다.”
고종실록 34권	1896.07.24. (고종33년)	조령을 내리기를, “국가의 사전(祀典)은 더없이 엄하고 공경스러운 것인데 그때 내각(內閣)의 역신(逆臣)이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멋대로 줄인 것부터가 더없이 통탄스럽다. 더구나 새 역서(曆書)와 옛 역서에는 원래 날짜가 차이나니 신중히 하는 도리로 보아 더더욱 미안하다. 이제부터 종묘와 전궁(殿宮), 각 능원(陵園)에 지내는 제사는 일체 옛 법대로 하며 일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날짜는 옛 역서의 날짜대로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원구단, 사직단, 여러 산천(山川)과 제묘(諸廟)의 향사(享祀)는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장례원 경(掌禮院卿)으로 하여금 현재의 형편을 참작하고 예법(禮法)을 상고하여 바로잡게 하며 또한 장례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사전이 이미 옛 법대로 회복된 만큼 고유(告由)의 절차가 없을 수 없다. 대신을 보내서 설행하게 하고 고유문은 마땅히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고종실록 34권	1896.08.14. (고종33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종묘와 전궁(殿宮), 각 능원(陵園)의 제향(祭享)은 일체 옛 규정을 따르고, 원구단, 사직단, 여러 산천, 여러 묘의 제향은 장례원 경(掌禮院卿)과 함께 참작하여 바로잡았습니다.” 하였다.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관한 별단 사직단(社稷壇)【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첫 무일(戊日)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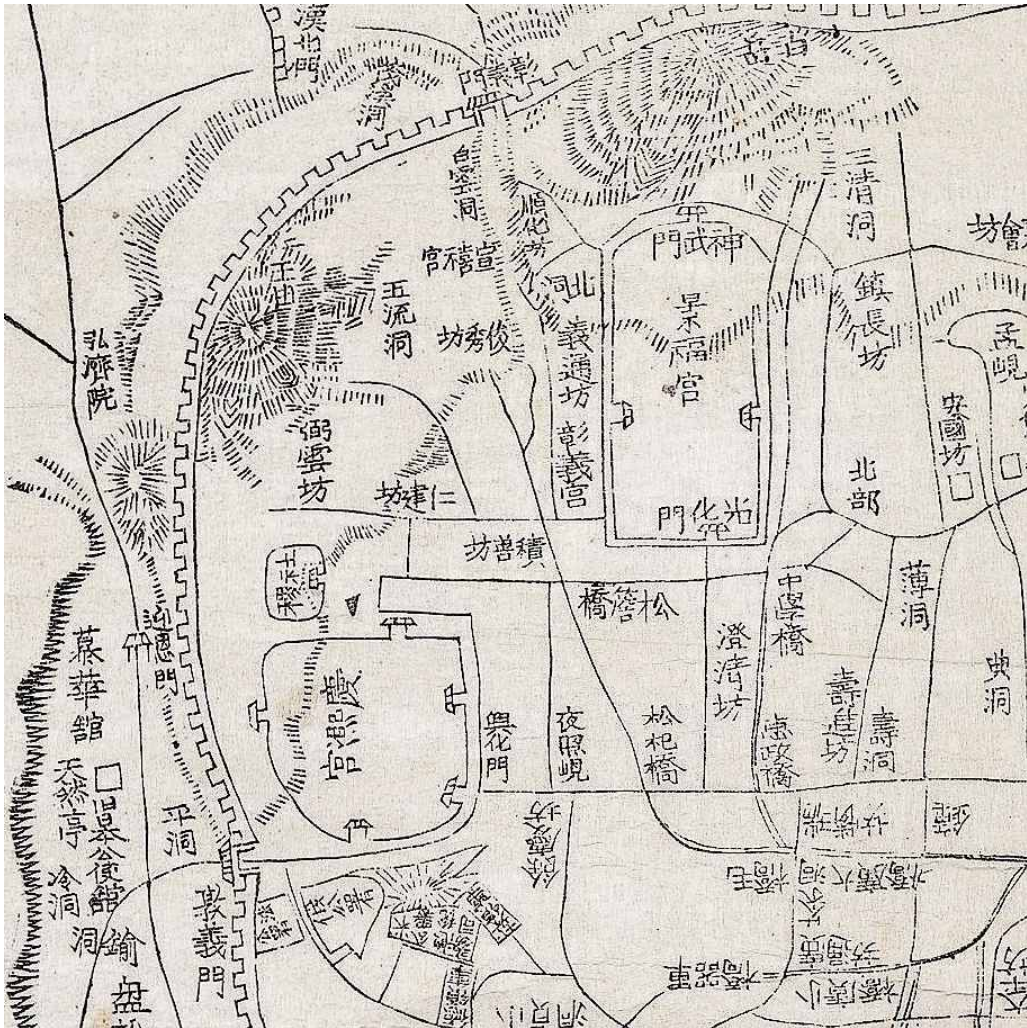
이후 1897년 10월 국체와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직단 위판에 쓰인 ‘국사(國社)’, ‘국직(國稷)’을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높여 부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종대에 제후국의 지위에 맞게 정비되었던¹³⁾ 사직단은 황제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05년 통신기관을 일본에 위임하는 한일통신기관협정이 체결되어 일본국 정부가 국유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직단 부지는 무상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사직단에서의 제사는 계속 유지되었고 사직단 일곽의 보호도 엄격히 행해졌다.

권 명	날짜	내용
고종실록 36권	1897.10.08. (고종34년)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사직단의 위판(位版)을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고쳐 써야 하니, 고쳐 쓰는 길일은 음력 9월 14일로 정하되, 응행절목(應行節目)을 봉상사(奉常司)이 거행하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가 차출하게 하소서.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와 봉안제(奉安祭)는 때에 맞추어 설행(設行)하소서.”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하였다.
고종실록 36권	1897.10.13. (고종34년)	9월 17일 백악산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원년으로 삼으며,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고종실록 45권	1905.04.01. (고종42년)	〈일한 통신기관 협정서(日韓通信機關協定書)〉가 체결되었다. 〈협정서(協定書)〉 한국에 통신기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유의 토지와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며 일개 개인의 토지와 건물은 유상으로 거두어 쓸 수 있다. 국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電), 우(郵) 양사를 제외하고, 궁내부가 관할하는 땅과 각 능(各陵), 원(園), 묘(墓) 및 종묘, 사직 부근의 땅, 각 관청 건물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 명	날짜	내용
황성신문	1905.08.07. (고종42년)	무고히 사직단에 올라가는 자는 징역 일 년에 처한다.
황성신문	1906.05.14. (고종43년)	사직단 담장이 무너져 장례원에서 보수하였다.
황성신문	1906.08.13. (고종43년)	사직단에서 제4차 기우제를 시행하였다.

고종대 사직단의 모습은 〈한양경성도(漢陽京城圖)〉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에는 19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지형을 짝한 털 모양의 선기호로 그리는 우모식(羽毛式) 기법이 사용되었다. 도심에서 산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봉우리까지가 우모식의 사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도심 내 지형의 높낮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사직단 영역은 인왕산의 동쪽 면에 위치하였는데, 인왕산의 줄기가 사직단을 거쳐 경희궁으로 연결되도록 묘사되었고, 사직단 담장 내 대부분은 산세에 포함되어 경사지로 표현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경희궁 남쪽으로 각국 공사관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

13) 세종실록, 54권, 1431.11.05.丙寅

어 변화된 정세를 유추할 수 있다.



한양경성도(漢陽京城圖), 1900년

순종대(1907-1910)에는 사직단 제사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대한제국에서 주관하고 있던 국가주도형의 각종 제사를 근대적인 것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¹⁴⁾ 1908년 향사리정(享祀釐正)으로 여러 제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사직단의 제사는 연 2회로 고정되었다. 일제강점 직전에 제사의 종류와 횟수를 축소하고 각종 제사 시설을 국유로 이관하는 등의 제도 개정은, 총독부로의 인계를 염두에 둔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사직단의 부지와 건물은 1911년 2월 총독부 소유가 되었고, 사직단에서의 제사는 폐지되었다.

권 명	날짜	내용
순종실록 2권	1908.01.20. (순종1년)	이제부터 원구단, 종묘, 사직단에 지내는 대제(大祭) 때 삼헌관(三獻官)을 1원(員)이 아울러 행하며, 그 아래 여러 집사(執事)들도 아울러 하게 하거나 인원수를 줄여서 적당히 배치하는 문제를 강령원에 통지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관제를 개정한 뒤에 제사와 관련하여 차임할 인원

14) 문화재청, 앞의 책, 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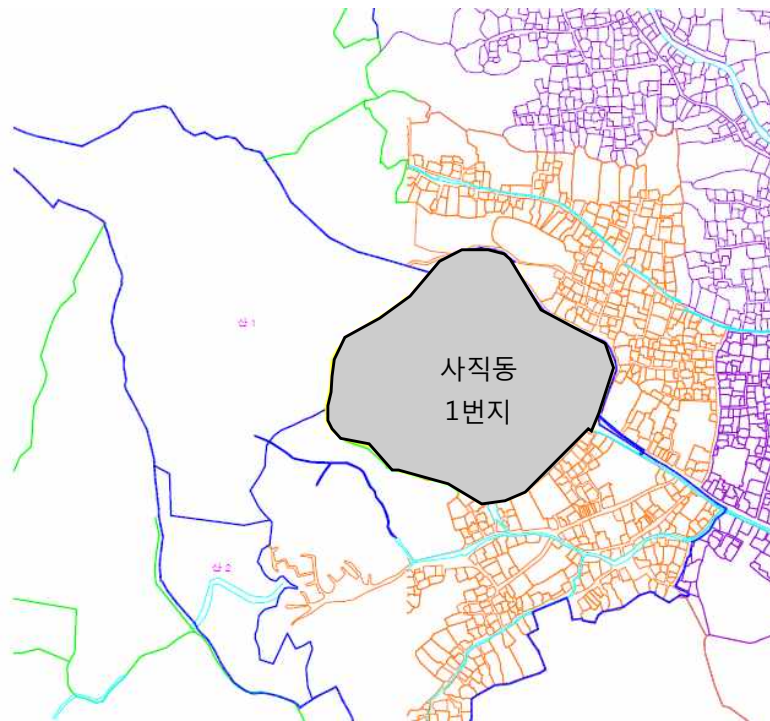
		이 적어졌기 때문이었다.
순종실록 2권	1908.07.23. (순종1년)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제사는 나라의 예의 제도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만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절이 번잡하면 말류의 폐단은 근본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당시의 조건에 맞게 예의를 제정한 것은 번잡한 것을 버리고 간소한 것을 취하는 것이었다. 모든 제도를 혁신하는 이때를 당하여 어찌 제례(祭禮)에만 옛 제도를 그대로 지키겠는가. 이제 옛 규례를 참고하고 현재의 조건에 알맞게 하여 공경하는 규범을 드러내고 영원히 지켜야 할 표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
순종실록 2권	1908.07.23. (순종1년)	〈개정한 제사 제도(享祀釐正)〉 원구단과 사직단에는 1년에 두 번, 종묘에는 1년에 네 번 지내고, 또 두 번 고유제(告由祭)를 지낸다. 선농단, 선잠단의 신위는 사직단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순종부록 2권	1911.02.20. (순종4년)	원구단, 사직서의 건물과 부지를 모두 총독부에 인계(引繼)하였다.

3. 일제강점기

1) 1910년대 : 사직단 제사의 폐지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에 사직단에서의 제사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1910년까지 내무부에서 사직단 향사비(享祀費)를 결정하거나¹⁵⁾ 지방의 사직단 수리비를 지불하는 등¹⁶⁾ 제사시설로서의 사직단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0년 10월 내무부에서 각지에 있는 사직단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총독부에 넘긴 후,¹⁷⁾ 1911년 사직단 폐지에 관한 훈령이 내려졌다.¹⁸⁾ 이후 전국 사직단 부지의 해체 및 처분이 점차 진행되어갔다.¹⁹⁾

사직단 일곽은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사사지(社寺地)’로 등록되었다. 1912년 당시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서 사직단 일곽은 16,662평 규모의 ‘사직동(社稷洞) 1번지’로 기입되었다. 이후 1931년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필 등의 물리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로 남겨져 있었다고 추정된다.



1912년 사직동 1번지 (음영부분, 1912년 지적원도 위에 편집)

당시의 사직단 일곽은 현재와 같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았다. 1910년대 지도상에서 사직단의 위치를 살펴보면, 사직단은 조선후기의 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광화문 앞

15) 대한매일신보, 1909.10.27., 「사직단향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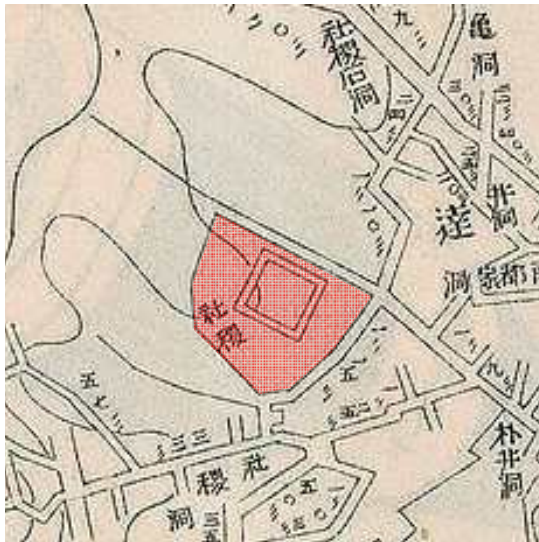
16) 황성신문, 1910.06.30., 「社稷修理費請撥」

17) 매일신보, 1910.10.14., 「雜報: 社稷壇規則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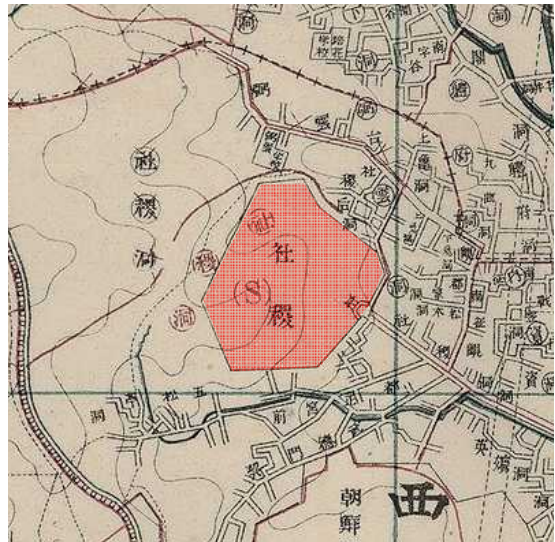
18)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 「사직단 폐지에 관한 훈령의 건에 대한 조복」, 『社寺宗教』, 1911

19) 매일신보, 1913.12.16., 「平南通信: 舊社稷壇의 處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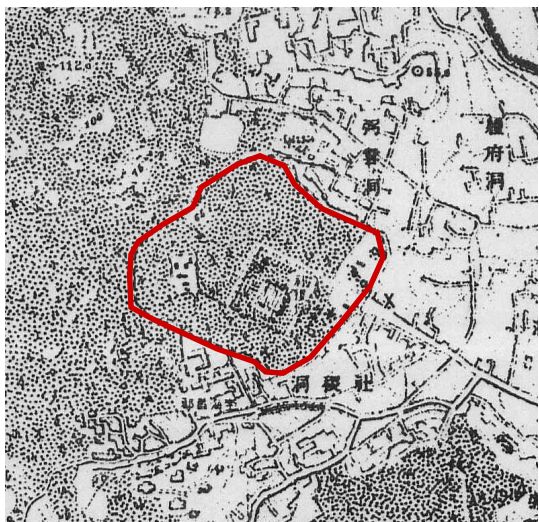
의 대로에서 뻗어 나온 길의 끝에 대문을 두어 비스타(Vista)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한 시설을 가로의 끝에 두어 시선의 초점을 구성하게 하는 수법은 광화문, 돈화문, 그리고 경운궁의 대한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경복궁에서 사직단을 거쳐 성곽 쪽으로 통하는 동서 방향의 도로는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물길과 지세를 따라 작은 길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사직단 영역은 이러한 동서 방향 길들과 연결하여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대의 풍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 생각된다.



1910년의 사직단 (경성시가전도)



1914년의 사직단 (경성부시가강계도)



1915년의 사직단 (조선지형도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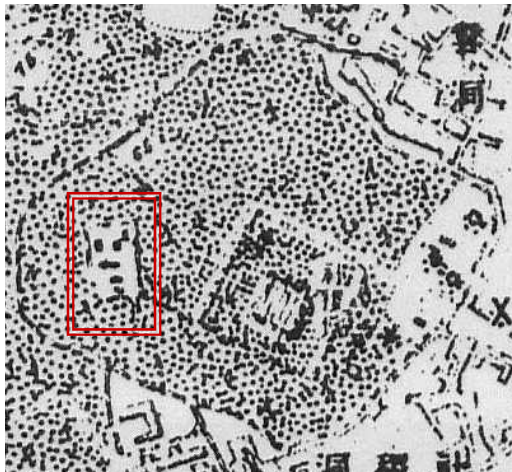


1910년대 후반의 사직단 (경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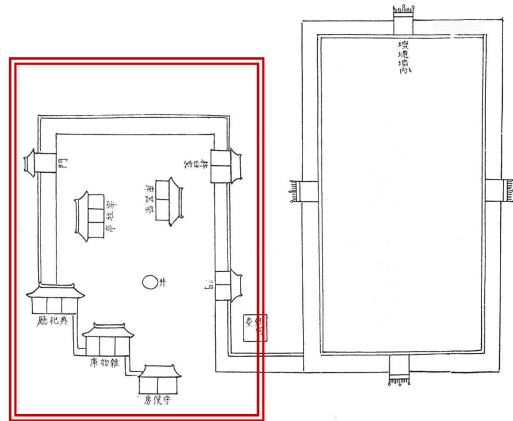
또한 당시의 사직단 영역 내외부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1915년 지도에는 사직단 영역이 녹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1931년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고적도보 11(朝鮮古蹟圖譜 十一)』의 사직단 사진에도 수많은 나무들을 볼 수 있다.

한편 1910년대 사직단 영역 내부에는 기존 건축물들이 일부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1915년과 1910년대 후반의 지도에서 장방형의 주원(周垣) 서쪽으로 부속 시설이 표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15년 지도에서 보이는 배치는 《사직서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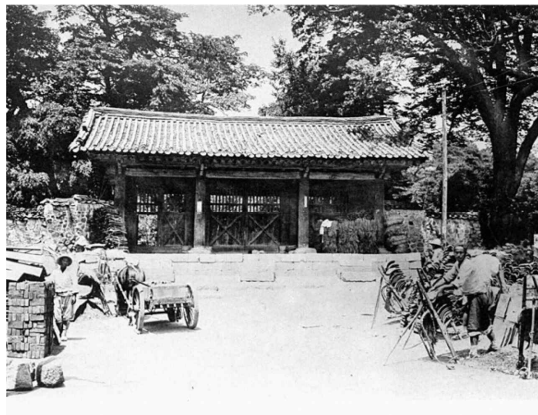
의 ‘사직서전도’에서 살펴 본 사직단 관리 및 제사준비 영역의 배치와 유사하다. 게다가 『조선고적도보 11(朝鮮古蹟圖譜 十一)』에도 ‘사직단 부속사(附屬舍)’란 제목으로 일부 건물의 사진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이 찍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사직단 영역이 사직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것이라 판단된다.



1915년 지도에 표기된 사직단 부속시설 (조선지형도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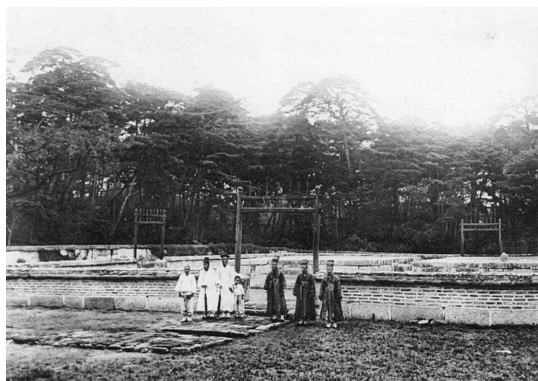
사직서전도에 표기된 부속시설 (《사직서의궤》)



사직단 외문(대문) (『조선고적도보11』)



사직단 부속사 (『조선고적도보11』)



사직단 전경 (『조선고적도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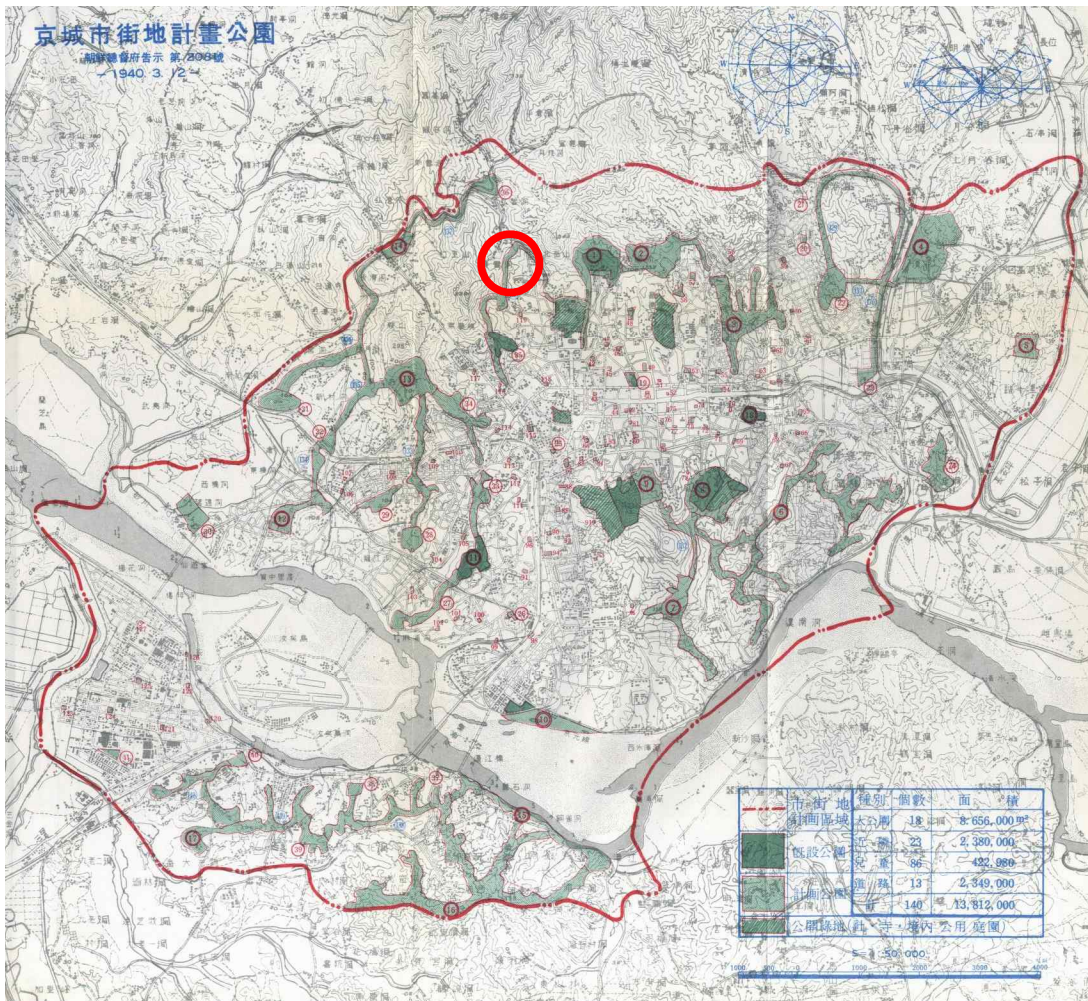


사직단 (『조선고적도보11』)

2) 1920년대 : 사직공원의 조성

1920년대 초, 본격적으로 사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사직단 일원의 경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당시에 시작된 공원화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근대 공원은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공간이 구획되고 경계 지어 졌다는 측면에서 전근대 시기의 자연공간과는 성격이 구분된다. 도성 내에 설치된 근대 공원은 독립협회에 의해 조성된 독립공원(1897), 일본 거류민단에 의한 왜성대공원(1897), 조선 왕실 소유로 개원한 파고다공원(연대미상)²⁰⁾ 있으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의 새로운 공원 조성은 자연경승지 또는 삼림 등 용지취득이 용이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당시의 도시계획 관련 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성시가지계획공원(1940.3.12.) 원 부분이 사직공원

1928년 발행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 당시 경성부의 계획구역 면적은 30,303,500평으로 4개의 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특별지역)과 2개의 지구(공원지구, 방화지구)

20) 파고다 공원 개원 연대를 『京城府史』에서는 1897년, 『서울시사』에서는 1895-1896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항성신문』 및 『독립신문』에 의하면 1899년도 파고다공원 부지 마련을 위해 일대의 불법주택 철거 시행 및 주민들과의 마찰에 관한 기사를 실고 있다.

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중 공원지구는 371,964만평(1,227,481.2m²)으로 한양·남산공원, 장충단공원, 경성운동장, 사직단, 효창원, 파고다공원, 철도공원으로 구성된 7개의 공원과 3개의 유보장이 명기되어 있다.

당시 공원은 도시에서의 위생, 휴양, 아동의 교육 등 사회 복지 차원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공원은 도시 확장으로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오락을, 아이들에게 운동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0년대 초, 본격적으로 사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²¹⁾ 1921년 경성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직단 부지를 차입하여 사직단을 헐고 운동장이 들어선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독부는 고적을 보존하기 위해 사직단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²²⁾ 당시 경성부는 이미 사직단 부지의 측량과 대략의 공원 설계를 마쳤으나, 사직단은 헐지 않고 그 부근의 땅에 공원을 만들어야한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되었다.²³⁾ 이를 반영하여 1921년 12월, 경성부는 “경성의 한 명소”인 사직단은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다수의 고목(古木)을 활용하여 공원을 설치한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²⁴⁾ 사직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효창원 공원, 재동취운정(翠雲亭)²⁵⁾ 공원과 함께 도시 개량과 대경성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포함되었는데,²⁶⁾²⁷⁾ 당시 공원 조성 사업은 1922년 경성부의 예정 사업 중 제1사업으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²⁸⁾

이에 따라 1922년 사직단의 공원 조성 계획이 점차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사직공원은 1922년 조성 예정 공원 3곳 중 가장 많은 노력을 들여 설비할 예정이었다. 당초 예산 12,000원으로 회유도로(廻遊道路, 산책로)와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고, 야구와 테니스 등의 운동이 가능한 운동장을 세울 계획이었다. 천연의 경치가 훌륭하였기 때문에 조경을 위한 예산은 크게 책정되지 않았다.²⁹⁾ 그러나 1923년 2월까지도 거의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으며, 사직단이 공원 후보지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³⁰⁾

21)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관보에 고시된 「京城市街地計畫公園左ノ通決定ス其ノ關係圖面ハ京城府廳ニ備ヘ置キ縱覽ニ供ス」(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에서는 “공원번호 35호 사직단공원, 217,000m²”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20년대 신문기사에서는 “사직공원”도 병용되었다.

22) 동아일보, 1921.11.29., 「橫說豎說」

23) 동아일보, 1921.11.29., 「社稷壇 公園問題」

24) 동아일보, 1921.12.26., 「新設할三處의公園」

25) 1870년대 중반 민태호(閔台鎬)가 지은 정자로, 유길준(兪吉濬)이 유포되어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지은 터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회합장소이기도 하였다. 한편 취운정은 나철(羅喆)이 1909년 1월 15일 제천의식과 단군제사를 지내며 대중교의 시작을 알린 곳이기도 하다. 현재 재동 1번지 감사원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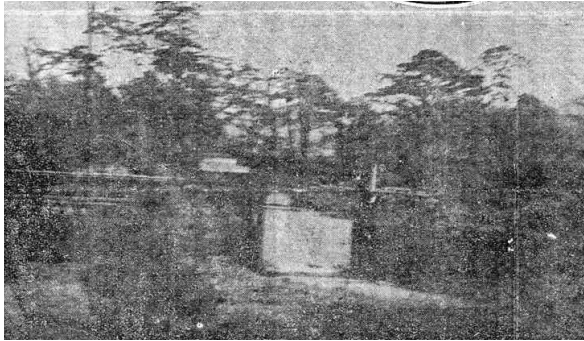
26) 동아일보, 1921.12.30., 「來年度에 社稷壇에서 園新設」

27) 동아일보, 1922.05.05., 「社稷公園의新設備」

28) 동아일보, 1922.01.01., 「경성부 新事業」

29) 동아일보, 1922.05.05., 「社稷公園의新設備」

30) 동아일보, 1923.02.06., 「경성 5公園의 완성은 몇 해 후에나 될는지 몰라, 12년도 예산에 계상」



1922년의 사직단
(동아일보, 1922.01.04, 「금년부터 경영향 경성부의 새공원에명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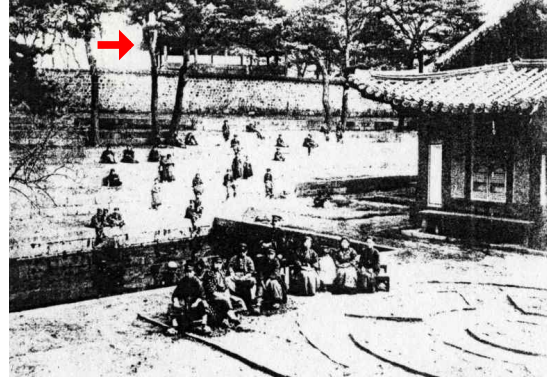


공원 조성 전(추정)의 사직단
(『그들의 시선으로 본 근대』)

한편 사직단이 공원으로 조성되어가던 1922년에, 사직단 북쪽 인왕산 자락으로 황학정(黃鶴亭)이 이전되었다. 황학정은 원래 경희궁 회상전(會祥殿) 북쪽에 조성된 사정(射亭)으로 1899년(광무3)에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³¹⁾ 1908년 고종이 경운궁에서 새문안로의 구름다리(雲橋)를 건너 황학정에서 활쏘기 연습을 한 기록이 있으며,³²⁾ 왕실 인사 또는 각부대신들도 황학정에서 활쏘기를 하였다고 한다.³³⁾ 일제강점기에는 오히려 한량(閑良)들의 편사터(便射, 편을 나누어 활을 쏘는 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백호정, 청룡정, 한강사정 등과 함께 많은 궁사들이 연습과 시합을 즐기는 장소로 운영되었다.³⁴⁾



경희궁 황학정의 모습 (추정)
(『黃鶴亭 百年史』)



경희궁 회상전 뒤편 언덕 위의 황학정
(京城公立中學校, 『慶熙史林』, 1940)

황학정이 경희궁을 떠나게 된 것은 경희궁에 조선총독부 전매국(專賣局) 관사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활을 쏘는 곳과 전매국 관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황학정에서 활 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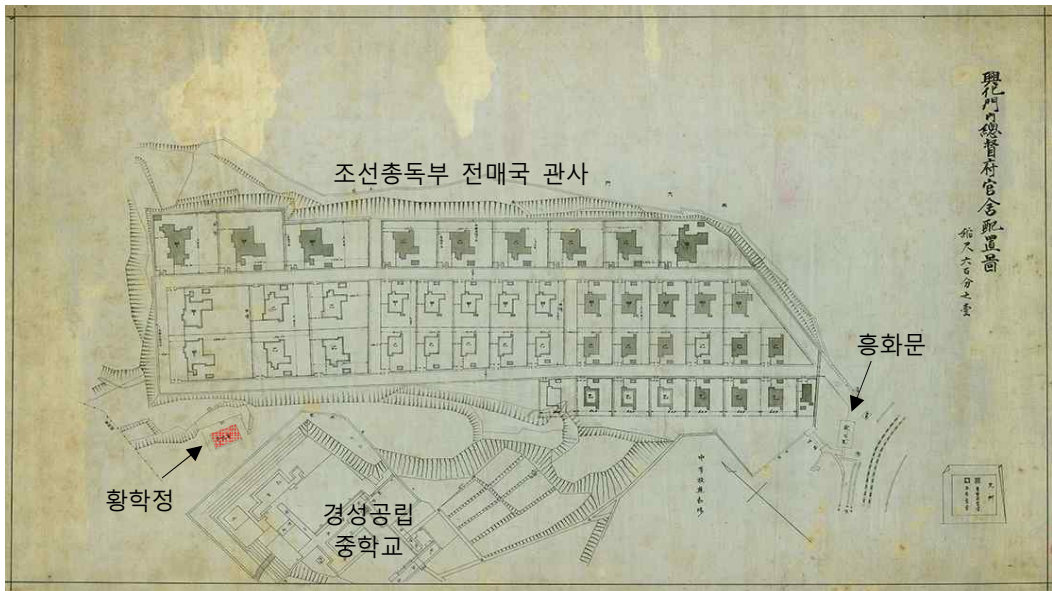
31) 京城府, 『京城府史』, 1권, 1941, 356-357쪽

32) 황성신문, 1908.4.22, 「御射黃鶴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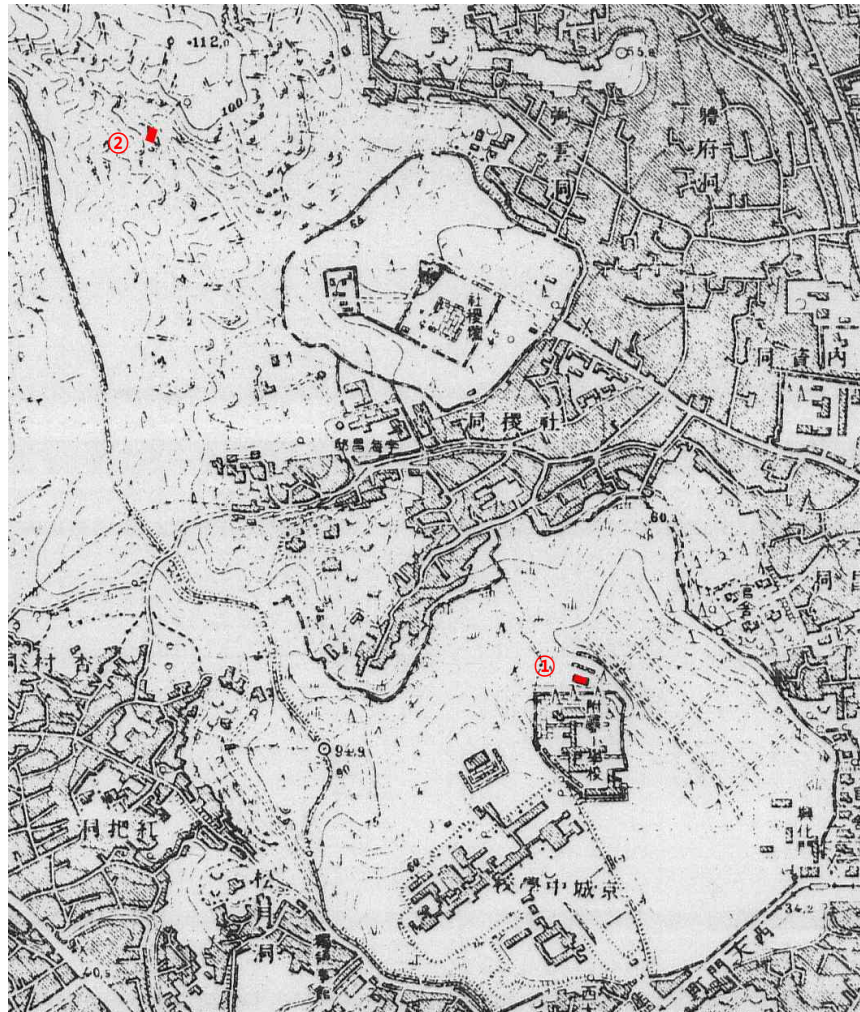
33) 대한매일신보, 1908.4.21, 「매일숙습」, 대한매일신보, 1908.5.24, 「잘덜논다」

34) 매일신보, 1921.7.25, 「聯合便射大會, 한강 말굽다리 근처에서 양일간 편사회」

매일신보, 1921.8.9, 「石虎亭이 又慘敗」



황학정의 원위치 (흥화문내총독부관사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1922-1923년 추정)



이건 이전의 황학정(①)과 이건 후 황학정 위치(②) 추정도
(조선지형도집성(1921) 편집)

이에 조선 왕실 귀족단체인 조선교풍회(朝鮮矯風會) 회장 박영효(朴泳孝)가 1921년 9월 10일 황학정 건물을 양여(讓與)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황학정을 옮길 부지와 낙시장(落矢場) 등 사직동 산1번지 959평에 대한 국유임야대부(國有林野貸付)허가를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였다. 1922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2월 6일에 경성부윤의 허가를 받아 대부허가를 완료하였고, 5월 12일에 조선총독으로부터 황학정 건물에 대한 양여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讓與物은 조선교풍회 경영 射亭用이며 이를 他用途에 쓰는 것을 금한다’ 및 ‘1922년 6월 15일까지 건물을 해체 철거하고 그 자리를 정리하라’라는 양여조건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황학정은 1922년 6월경 사직단 북쪽 언덕으로 이전되었다.³⁵⁾

1923년 드디어 일부 시설을 갖춘 ‘사직단 공원(혹은 ‘사직공원’)이 개장되었다.³⁶⁾ 1923년 2월경에는 사직단 일원을 기초로 부근의 산을 포함하여 72,600여 평 규모의 “경성 북부의 완전한 공원”을 만들 계획도 시도되었으나,³⁷⁾ 같은 해 3월 수차례의 공원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산책로와 벤치, 전등 등의 적은 설비만 우선 설치하도록 계획이 축소되었다.³⁸⁾³⁹⁾ 이후 사직단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신문기사 내용 등을 통해,⁴⁰⁾ 1923년 5월 이전에 ‘사직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공원 개장 이후에도 공원 설비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1920년대에 계획 혹은 진행된 공사를 살펴보면, 우선 1923년 7월 대납량대(大納涼臺) 설치,⁴¹⁾ 1924년 5월 공원 주위 도로 확장 및 연장,⁴²⁾ 1924년 11월 공원 내 산책로와 벤치 설치,⁴³⁾ 1926년 2월 개울의 호안 공사 및 벚꽃과 단풍나무 식수, 도로 일부 개수, 다리 설치, 테니스 코트 및 정자 2개소 설치, 전등과 공동 변소 설치⁴⁴⁾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지도들에 사직공원 조성의 진행 양상이 자세히 표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의 지도들을 통해 1920년대에도 기존의 사직단 제사 시설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직단 일곽이 ‘사직단공원’으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지도부터인데, 특히 1927년 <경성시가도>에서 사직공원 내외에 그려진 길들은 공원 내 설치된 산책로와 공원 주변에 확장 혹은 연장된 도로일 것으로 생각된다.

35) 황학정 100년사 편찬위원회, 『黃鶴亭 百年史』, 황학정, 2001, 51-53쪽

36)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관보에 고시된 「京城市街地計畫公園左ノ通決定ス其ノ關係圖面ハ京城府廳ニ備ヘ置キ縱覽ニ供ス」(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에서는 “공원번호 35호 사직단공원, 217,000m²”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20년대 신문기사에서는 “사직공원”도 병용되었다.

37) 동아일보, 1923.02.11., 「社稷壇公園擴大」

38) 동아일보, 1923.03.15., 「4處 公園 신 예산, 3만2천3백원의 예산으로 설비를 하여 갈 작정」

39) 동아일보, 1923.03.15., 「新年度의 公園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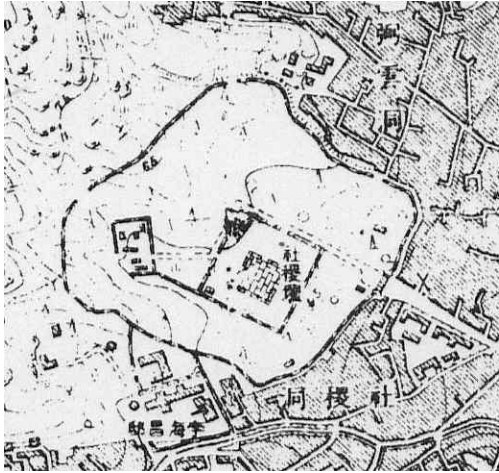
40) 동아일보, 1923.05.09., 「煙草職工 慰安會」

41) 동아일보, 1923.07.18., 「社稷公園에 大納涼臺 일간공사를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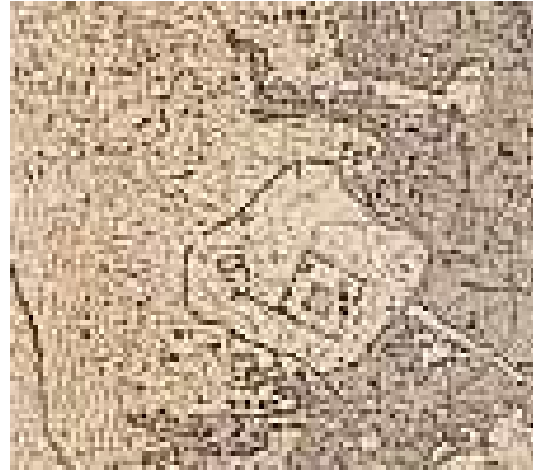
42) 동아일보, 1924.05.08., 「각 공원을 수리, 2만원의 예산으로 각 공원에 정자와 화단을 설치, 효창원과 사직단 도로를 개척」

43) 동아일보, 1924.11.16., 「即時着手할 社稷公園」

44) 동아일보, 1926.12.13., 「社稷公園에植櫻 庭球場도二個所設置 사직단공원의금년도사업」



1921년의 사직단 (조선지형도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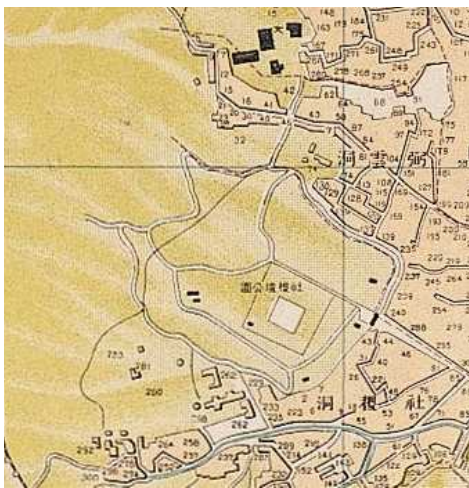
1922년의 사직단 (경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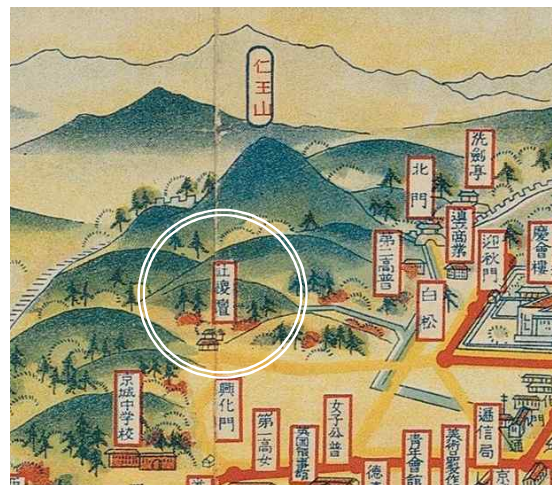
1924년의 사직단 (경성도조선교통지도)



1927년의 사직단공원 (경성부관내도)



1927년의 사직단공원 (경성시가도)



경성유람안내도에 소개된 사직단
(경성유람안내도, 1920년대 후반)

사직공원은 다양한 활동의 배경이 되었다. 1920년대 신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1922년에 이 건된 황학정은 “사직공원 안 황학정”으로 인식되며,⁴⁵⁾

45) 동아일보, 1926.08.05, 「중앙소년회 소식일숙」

궁술 대회 등이 개최되는⁴⁶⁾ 일종의 확장된 공원 내 운동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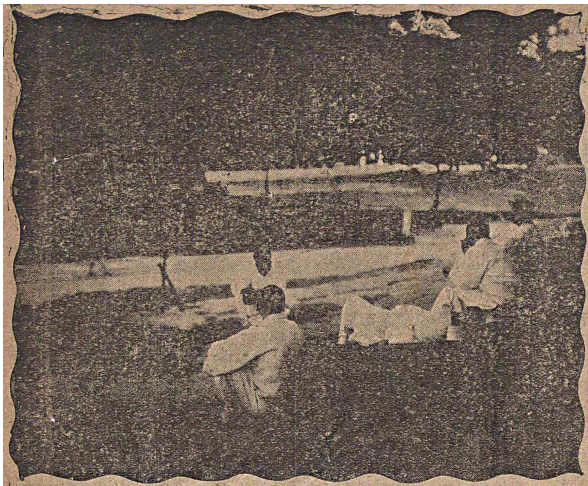
출처	기사명	내용
매일신보, 1923.05.09	煙草職工 慰安會	경성전매지국이 사직단공원에서 직공 위안회를 개최함.
신한민보, 1925.01.08	협성학교에 분규 계속	협성학교 학생 150명이 사직단에 모여 결의.
매일신보, 1926.05.09	鮮展을 앞에 두고 藝術의 聖殿을 찾아 (4), 古宮의 一隅를 製作中인 金奭永氏	신진서양화가 김석영(金奭永)은 왕십리 숲에서 사직공원까지 풍경을 그림.
매일신보, 1927.07.21	北西部繁榮會 納涼映畫會	경성부북서부번영회가 사직공원에서 사진회를 개최할 예정임.
중외일보, 1929.04.21	관앵음악제, 20일 밤부터	경성부 관앵음악회가 사직단공원에서 개최 예정임.

46) 동아일보, 1927.06.24, 「驪州弓術盛況」 외 다수의 신문기사가 있다.

3) 1930-40년대 : 사직공원의 변화

1930-40년대 당시 사직공원은 경성부민들에게 어떤 공원이었을까? 신문 기사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사직공원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갖춘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우선 첫째, 사직공원은 인왕산과 연계된 풍부한 녹지를 갖춘 녹지공원이었다. 1930년의 한 신문기사에서, 사직공원은 “송백(松柏)이 응울(鬱鬱)하여 아름다운 천연의 공원”이며 여름 더위를 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는 공원으로 묘사되었다. 사직공원은 “훌륭한 피난처”이자 “안식소”였으며, “서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황학정이 있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백년 노송이 군데군데 서있고 온갖 수목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시원한 별천지”였다.⁴⁷⁾ 특히 사직공원은 오래된 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공원 안의 나무가 특별히 소개되기도 하였다.⁴⁸⁾ 더 나아가 1933년에는 사직공원에서 인왕산을 거쳐 창의문을 지나 동소문까지 다다르는 도로를 개통하여 대삼림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등장하였다.⁴⁹⁾ 사직공원의 녹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는데,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사직공원은 현재의 그린벨트의 원조 격인 풍치지구로 지정되었고,⁵⁰⁾ 1939년에는 동네 주민들이 ‘사직단공원 근로봉사회’를 조직하여 청소와 취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였으며,⁵¹⁾ 1940년 식수일(植樹日)을 맞이하여 경성부가 사직공원 식수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⁵²⁾



1930년 여름의 사직공원 풍경
(매일신보, 1930.06.12, 「初夏點景 第十場」)



신문에 소개된 500살 나무
(동아일보, 1933.07.22, 「高齡樹巡禮」)

둘째, 사직공원은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의 장이었다. 사직공원은 구세군에서 고아들에게

47) 매일신보, 1930.06.12, 「初夏點景 第十場」

48) 동아일보, 1933.07.22, 「高齡樹巡禮」

49) 동아일보, 1933.04.16, 「近郊一帶에森林公園 南山,仁旺에散策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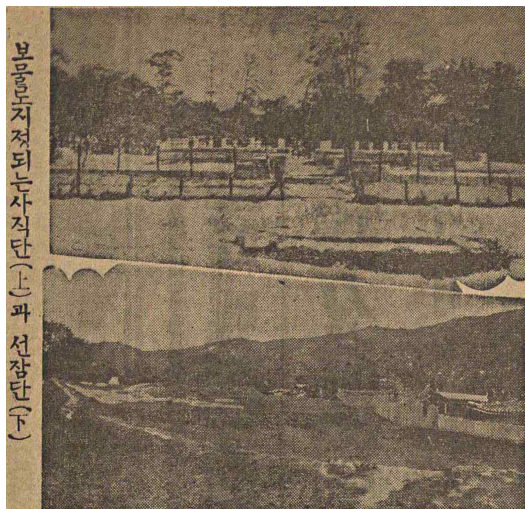
50) 동아일보, 1934.06.29, 「市街地令과 그미치는 影響 (4)」

51) 매일신보, 1939.07.20, 「町内の老少가公園을每日清掃 社稷町勤勞奉仕隊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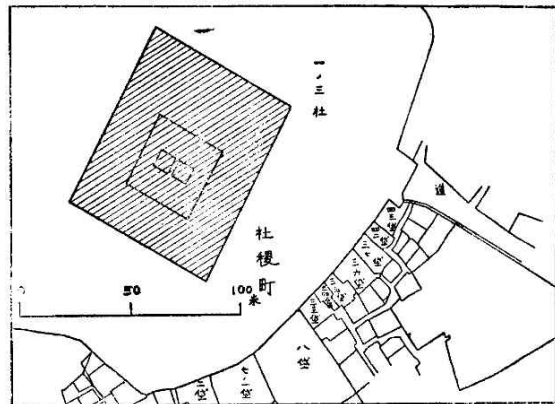
52) 동아일보, 1940.03.25, 「京城府의植樹祭」

겨울 옷과 음식을 나눠주었던 장소였으며,⁵³⁾ 서울보건체조단(서울保健體操團)에서 보건체조를 하던 곳이었다.⁵⁴⁾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하급 세민층의 교화를 위하여 사직공원에서 사회교화활동사진회(社會活動寫眞會)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⁵⁵⁾ 궁민 구제(窮民救濟) 사업으로 1935년 공원 안에 인보관(北部 隣保館)⁵⁶⁾을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었다.⁵⁷⁾ 특히 이러한 사직공원의 사회복지활동의 장으로서의 특성은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었다.

셋째, 사직공원은 문화유산을 갖춘 역사공원이었다. 사직단이 오래된 유적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사직단 영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다룬 바 있다. 이후 1930년대에는 사직단과 사직단 영역 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오늘날의 문화재 지정과 같은 작업이 진행되었다. 1931년에는 사직단 재실(齋室)이 광화문, 흥인지문 등과 함께 경성부 내 37개의 고대의 건물로 선정되어 조선고적명소천연물보존령(朝鮮古蹟名所天然物保存令)에 의해 보존되게 되었고,⁵⁸⁾ 1935년에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에서 사직단을 고적(古蹟)으로,⁵⁹⁾ 1938년에 사직단문을 보물(寶物)로 지정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였다.⁶⁰⁾



보물로 지정되는 사직단
(매일신보, 1938.09.28., 寶物,古蹟天然 記念物
八十件을 追加指定)



고적 제57호로 지정된 경성 사직단
(《조선총독부관보》,
1936.05.23.朝鮮總督府告示第318號)

1930-40년대는 사직단 영역인 '사직동 1번지'의 필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다. 1933년에 사직동 1번지 북쪽에 준공된 매동공립보통학교가 이 변화의 시발점이다. 먼저

53) 중외일보, 1930.01.12., 「飢寒의 거리에 출현한 천사」

54) 동아일보, 1932.03.05., 「서울體操團 聯合練習」

55) 동아일보, 1932.10.06., 「府社會課主催 教化映畫公開」

56) 19세기 도시 내 빈민구제를 위해 발생한 'Settlement House Movement', 'Neighborhood House Movement'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다. 최초의 인보관은 1886년 영국의 '토인비홀(Toynbee hall)'이며, 미국에서는 1889년 제인 아담스(J. Addams)에 의해 설립된 '헐 하우스(Hull house)'가 최초의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1921년 감리회 선교사에 의해 태화사회관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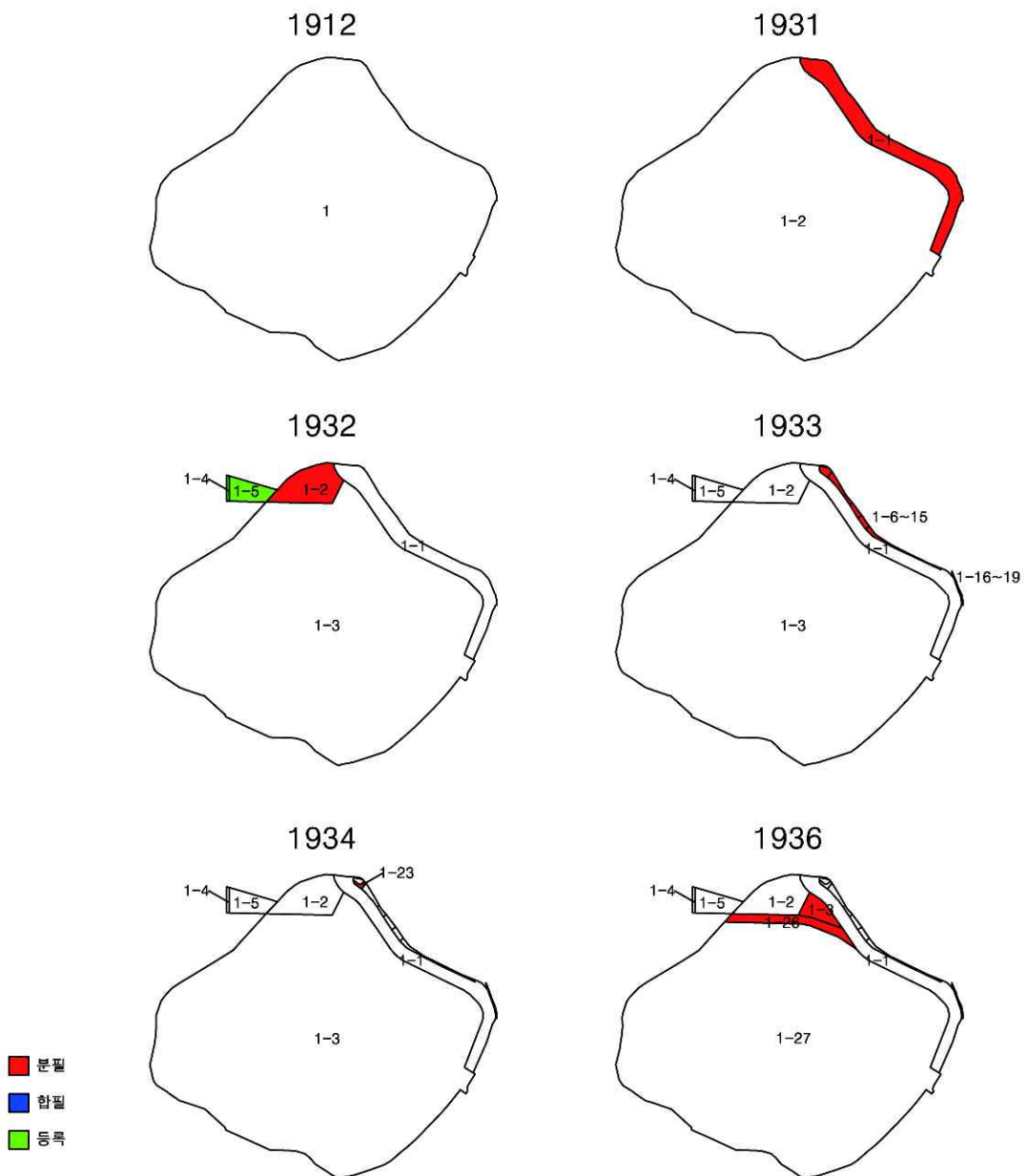
57) 동아일보, 1935.12.19., 「四萬五千圓으로 運動場改修」

58) 동아일보, 1931.06.09., 「宗教課에서 草案完了 古蹟과 寶物保存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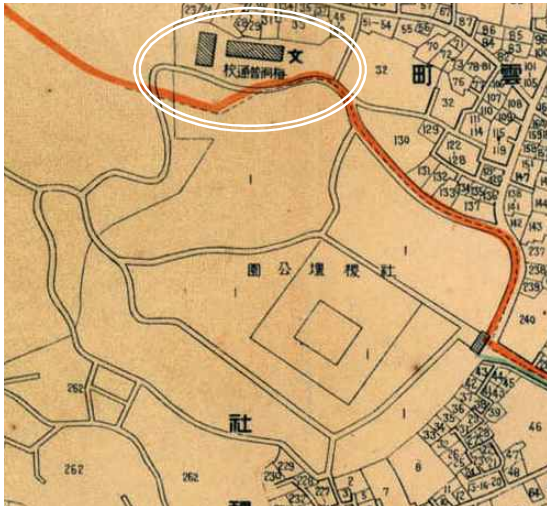
59) 동아일보, 1935.08.09., 「園丘壇(한구단)은 寶物(보물)로되고 獨立門(독립문)은 古蹟(고적)으로」

60) 매일신보, 1938.09.28., 「寶物,古蹟天然記念物 八十件을 追加指定」

1931년에 사직동 1번지에서 사직동 1-1번지가 도로로 분할되었으며, 1932년에 1-2번지가 다시 분할되면서 512평 규모의 1-2번지는 매동공립보통학교의 부지로 전환되었다. 이와 동시에 1-4, 5번지가 1-2번지 서쪽으로 새로 등록되었는데, 역시 학교 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후 1936년 1-3번지에서 분필된 1-26번지는 학교의 남쪽 도로 용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매동학교가 자리한 북쪽 변과 접근로에 해당하는 동쪽 변의 필지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직단이 위치한 사직공원의 영역(社寺地)은 계속 축소되었으며, 필지가 분할됨에 따라 사직공원에 부여된 번지수도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사직동 1번지 필지 변화 (1912-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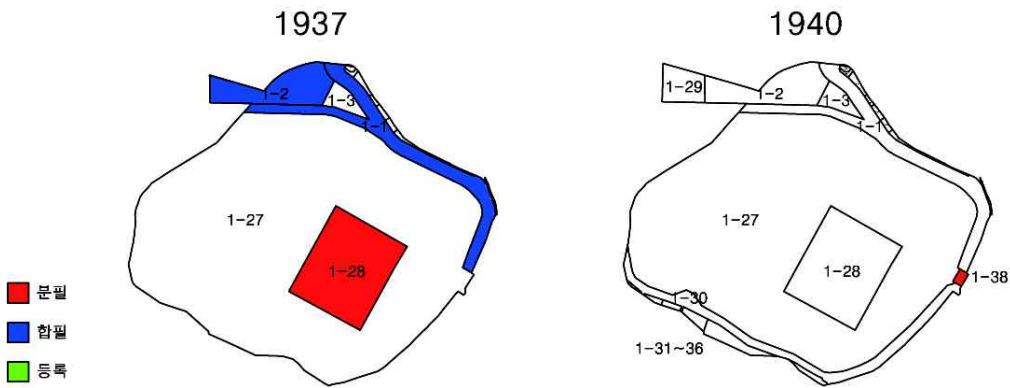


매동공립보통학교의 위치
(대경성정도, 1936년)



준공된 매동공립보통학교
(동아일보, 1933.01.19, 「梅洞公普新築 十九日入校式」)

이후 사직공원 필지는 사직단의 고적 지정과 사직단 정문의 보물 지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1937년 당시 사직공원 필지인 1-27번지에서 사직단의 주원(周垣) 영역이 1-28번지로 분할되었으며, 1940년 사직공원 필지인 1-27번지에서 사직단 정문이 위치한 부분이 1-38번지로 분할되었다. 그 결과 사직공원은 3개의 필지로 나뉘게 되었다.



사직동 1번지 필지 변화 (1937, 1940)

한편 사직공원 내 시설은 1930-40년대에도 계속 정비되었다. 1930년대 초에 사직공원의 예산이 크게 줄어 공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후,⁶¹⁾⁶²⁾ 1933년 사직공원 등 경성부 내 공원에 새로운 설비 신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⁶³⁾⁶⁴⁾ 이에 1934년 사직공원 내 산책로와 전등을 증설하도록 결정되어⁶⁵⁾ 1936년에 공사가 착수되었다.⁶⁶⁾ 또한 1939년

61) 동아일보, 1931.03.18, 「汚物掃除等 差別을論難」
 62) 동아일보, 1932.12.12, 「橫說豎說」
 63) 동아일보, 1933.09.08, 「五個年繼續事業으로 新裝되는市內公園」
 64) 동아일보, 1933.10.26, 「三公園을 新設코 五個公園은 完備」
 65) 동아일보, 1934.03.07, 「市民의慰安場 各公園을新裝」
 66) 동아일보, 1936.06.27, 「扮裝하는北村公園 社稷公園에周回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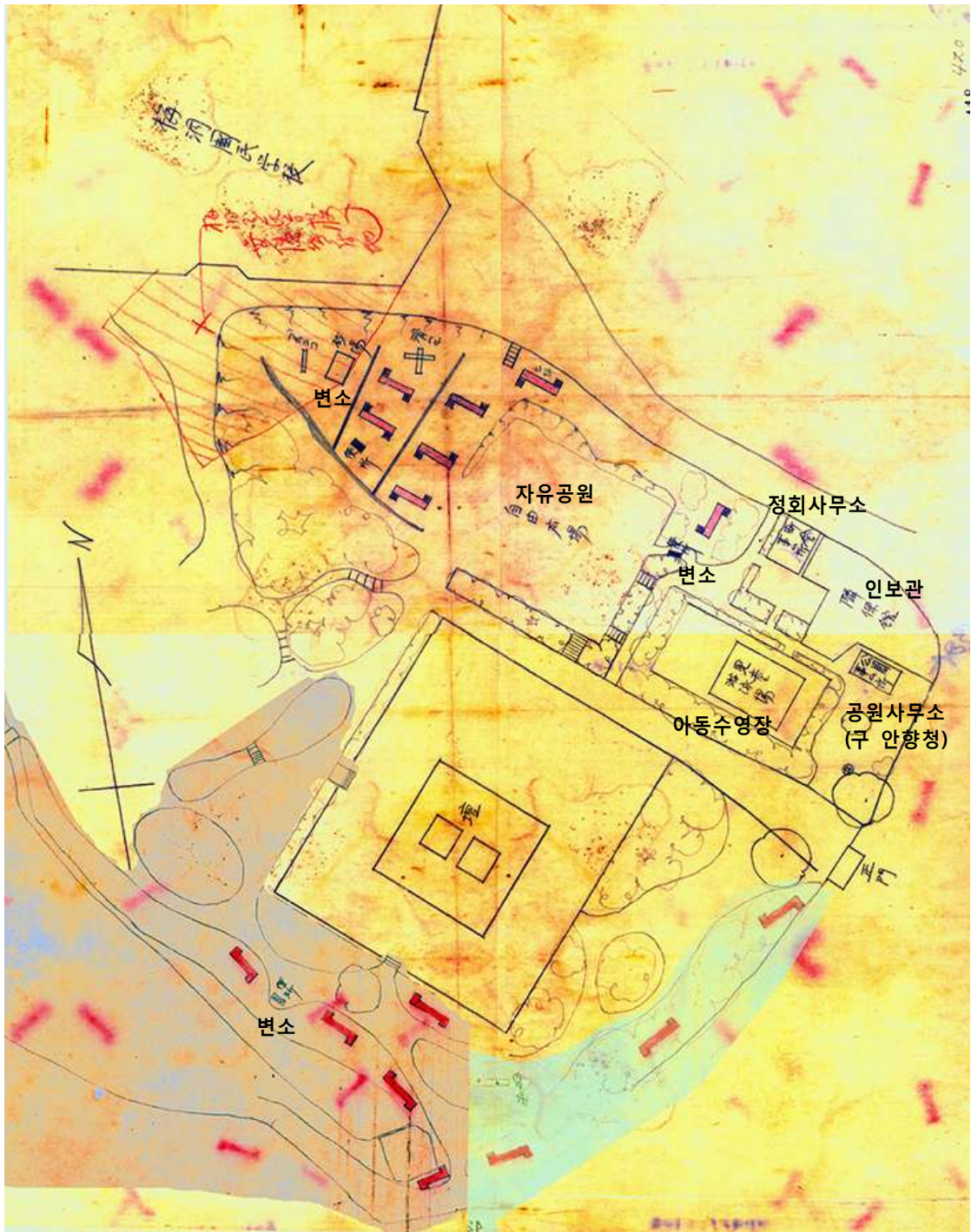
에는 다수의 나무를 심어 장식하도록 하였다.⁶⁷⁾ 1937년 공원 배치도에는 사직공원 내 조성된 산책로가 그려져 있다. 이 당시 공원 안에는 아동정원(兒童庭園)과 정자 및 변소가 설치되었다. 사직단의 부속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고 안향청(安香廳)만이 사무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원 배치도에는 황학정으로 이어지는 길도 표기되어 있어, 황학정도 사직공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도면에는 60여 그루의 말라 죽은 나무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공원 내 식수(植樹) 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1937년 사직공원 배치도
(사직단공원관유림내 고손목(枯損木)조사도, 국가기록원 소장,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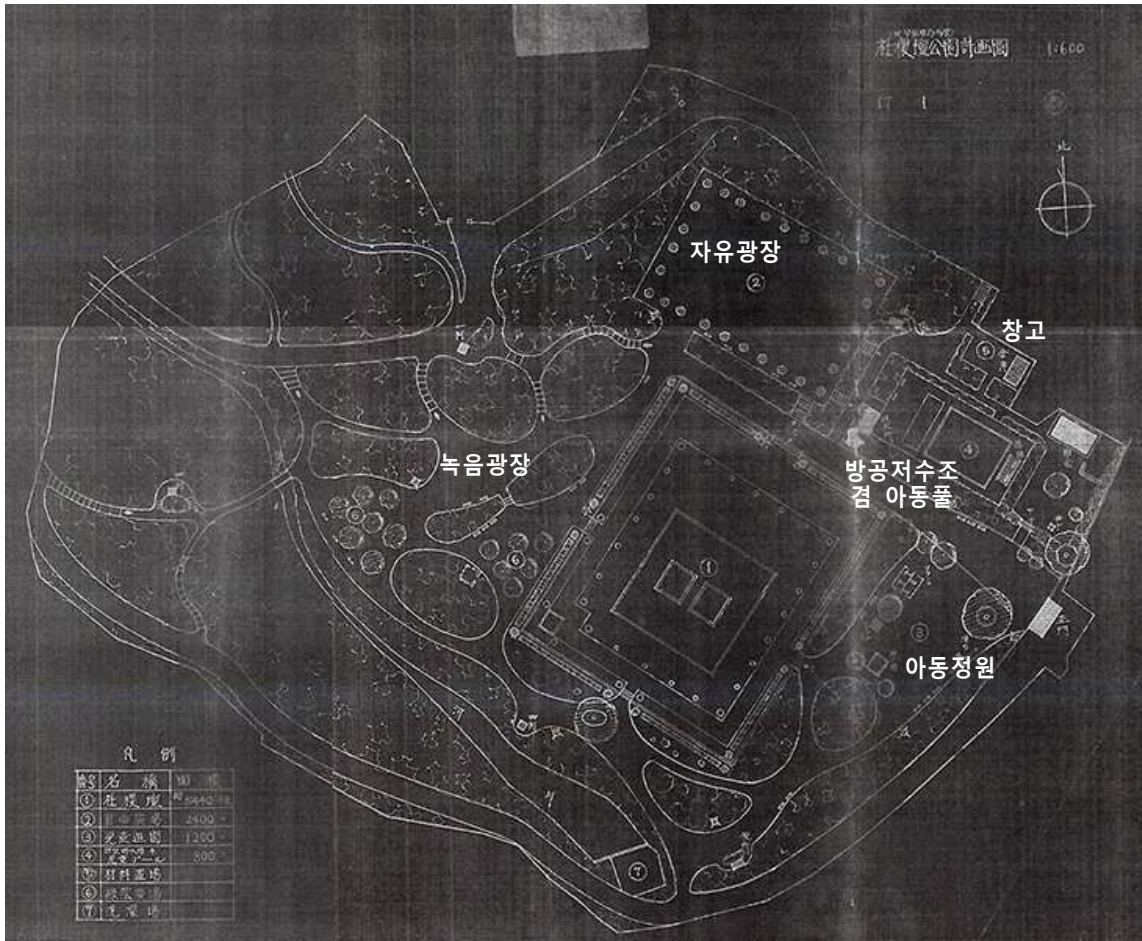
이후에도 공원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1941년 공원 배치도에서 기존에 아동정원과 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아동수영장과 정회(町會)사무소 및 인보관(隣保館)이 추가적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직공원 내에 여러 동의 방공호(防空壕)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당시의 필지 분할 상황과는 무관하게, 매동공립보통학교 부지 남쪽으로 사직공원의 부지를 침범하여 학교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7) 동아일보, 1939.03.19, 「各公園을美粧」



1941년 사직공원 배치도
 (공원용지내방공호설치에관한건, 국가기록원 소장, 1941년)

1943년에는 학교시설 건립 계획이 진행되어 공원 내 새로운 길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직공원의 길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1941-1943년 사이의 방공호 계획을 통해서 사직단 정문 옆에 방공호가 건설되었다.⁶⁸⁾ 이와 함께 아동수영장에도 방공저수조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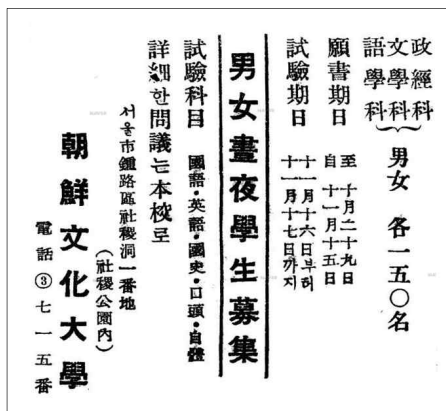
1943년 사직공원 계획도 (사직단공원광장이전공사설계서, 국가기록원 소장, 1943년)

68) 방공호의 규모와 위치는 1987년의 사직단 복원정비공사에서 작성된 현황배치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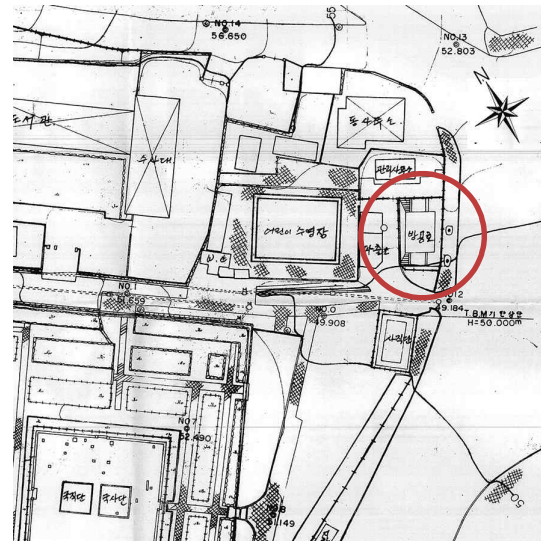
4. 해방 이후

1) 해방 후 - 1967년 : 도시 내 유희시설 활용

해방이 되어서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제시기에 지은 방공호에 전재민(戰災民)들이 몰려들어 사용하였다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파출소와 사직동 주민센터가 있는 사직동의 동북부는 경복궁 서쪽의 주거지와 사직단 공원이 만나는 경계부로 일제시기 인보관과 방공훈련호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해방이 되자 방공호 주변은 전재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46년경 웅변구락부(雄辯俱樂部)가 문화대학(文化大學)을 이곳에 설치하였는데⁶⁹⁾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전재민들과의 분쟁이 있었다⁷⁰⁾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문화대학 학생모집광고
(경향신문, 1946.10.31.)



방공호 위치
(1987년 사직단현황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현재 사직동 주민센터가 자리한 곳이 일제시기 인보관(隣保館)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시립중앙보호소에서 사용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8년 1월 12일에는 사직동 산 1번지에 소년수용소가 개원하였으며,⁷¹⁾ 같은 해 1월 24일에는 시립중앙보호소가 사직공원에 설치되면서 소년수용소는 시립중앙보호소로 개편되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시 운영 중단되었으나, 9.28 수복으로 재차 개소하였는데, 보호소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 인보관을 임시로 사용하였다.⁷²⁾ 한편, 1958년 서대문구 응암동 산7-12에 시립아동보호소가 조성됨에 따라⁷³⁾ 사직동의 아동보호소는 역할이 중단되었다. 대신 보다 어린 아이를 수용하는 시립영아원이 설립되어 구 인보관 자리에 1963년 신청사를 지었으며,⁷⁴⁾ 1966년 보육병원으로 통합되었다.⁷⁵⁾

69) 경향신문, 1946.10.31., 「男女晝夜學生募集」, 경향신문, 1946.11.03., 「男女晝夜學生募集」, 경향신문, 1946.11.05., 「男女晝夜學生募集」

70) 동아일보, 1946.12.1., 「投書函」

71) 동아일보, 1948. 1. 17., 「朝鮮少年保護資金에「운라」救濟會서三百萬圓寄附」

7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解放後市政編)』, 1965, p.437

73) 경향신문, 1957.08.17., 「메가폰」



시립중앙보호소 개설
(동아일보, 1948.1.24., 「少年育成의殿堂 市立中央保護所開設」)



일제강점기의 인보관과 아동 수영장
(국가기록원 소장, 1941)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원래 1956년에 보건병원으로 세워진 것이다. 보건병원은 시비(市費)와 AFKA(미8군대한현지원조계획업체보조)의 원조를 받아 1956년 2월 10일 기공되어 9월 26일에 완공되었으며, 대지면적 2,204평 및 건평 1,183평이었다.⁷⁶⁾ 1966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인접한 시립영아원을 통합하여 ‘보육병원’으로,⁷⁷⁾ 1969년 4월에 다시 ‘시립아동병원’으로 개칭되었다.⁷⁸⁾ 이후 1977년 10월 1일에 서울 강남구(현재 서초구) 내곡동에 새로 조성된 청사로 이전하고, 그 건물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⁷⁹⁾



보건병원
(지번입서서울특별시가지도, 1958)



보건
병원

이전 예정의 시립아동병원
(사진의 건물은 1963년 옛 인보관터에 지은 시립영아원의 건물로 1966년 보건병원과 통합하여 보육병원이 되고, 1969년 시립아동병원으로 개칭되었다. 경향신문, 1977.1.24.)

1960년 7월에는 방공호 서쪽에 어린이놀이 개장되었다. 사직공원 내 어린이놀이는 원래 1941년경 방공저수조 겸 아동수영장으로 만들었던 시설을 재활용한 것으로, 시내 7개 공원에 계획된 수영장 중 가장 먼저 개장된 것이었다.⁸⁰⁾

74) 동아일보, 1963.01.23., 「社稷公園안에 現代式嬰兒院건축」

75) 동아일보, 1974.05.28., 「복지施設 現場의 明暗 (3) 市立아동病院」

76) 동아일보, 1956.2.11., 「兒童保健 病院起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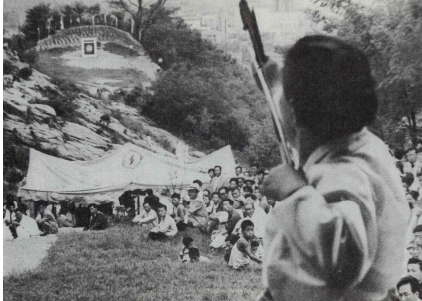
경향신문, 1956.9.23., 「市立保健病院竣工 26日,落成式舉行키로」

77) 종로구, 『종로구지(하권)』, 1994, p.459

78)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홈페이지(<http://childhosp.seoul.go.kr>)

79) 경향신문, 1976.3.23., 「江南구 내곡동에 市立아동病院」, 경향신문, 1976.9.17., 「市立아동病院 移轉」

한편, 사직동 산 1번지에 위치한 황학정에서는 1959년 황학정 건물과 과녁 사이에 사방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공사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시찰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다.⁸¹⁾



1959년 황학정에서 활쏘는 광경
(『黃鶴亭 百年史』)



1960년대초 황학정에서 활쏘는 광경
(『黃鶴亭 百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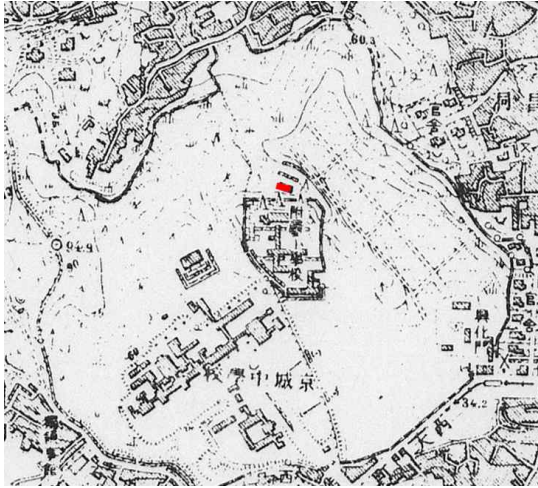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의 황학정 근처 사방공사현장 시찰
(국가기록원 소장)

황학정의 원위치는 지도와 도면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朝鮮總督府作製) 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의 「京城西北部-1」(1921년 제작)에서 너른 경희궁 영역에 경성중학교 시설로 변경된 경희궁 전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 내전에 해당하는 회상전 뒤편으로 황학정이 남아있다. 1922-1923년 사이에 작성된 <홍화문내총독부관사배치도1> (국가기록원소장)에는 조선총독부 전매국(專賣局)을 위해 계획된 대규모 관사와 인접하여 황학정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학정에서 활을 쏘는 방향으로 관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정(射亭)으로서의 황학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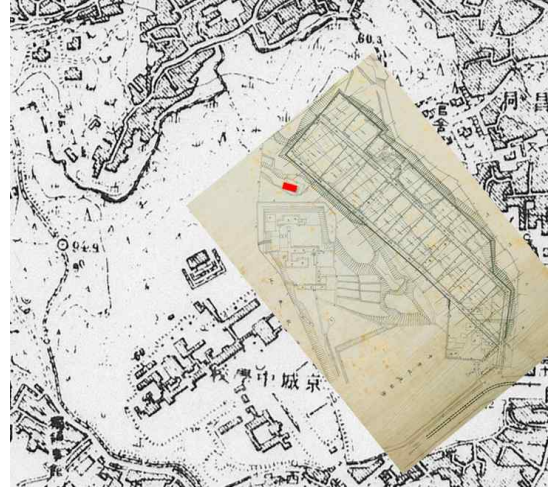
일제시기의 지도와 도면을 통해서 확인한 황학정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80 (도로명주소, 종로구 경희궁1가길 9)에 해당한다.

80) 동아일보, 1960.7.2., 「공원에아동풀 우선 세군데부터」

81) 동아일보, 1959.11.26., 「李大統領視察 砂防工事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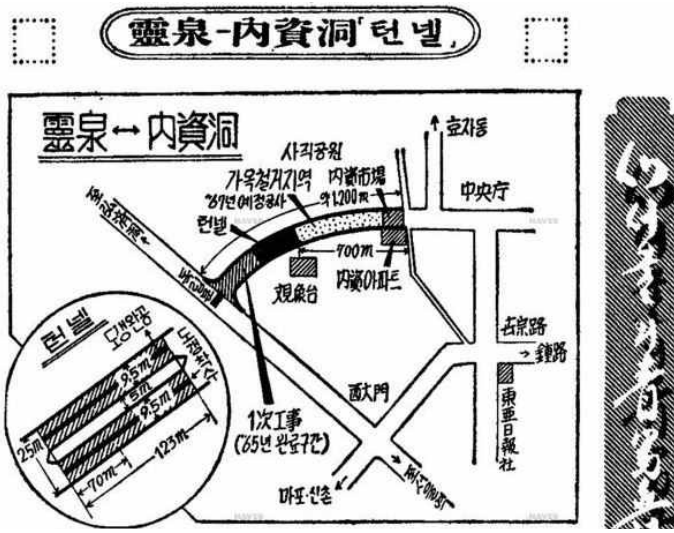
황학정 원위치 1
(경성서북부 지도,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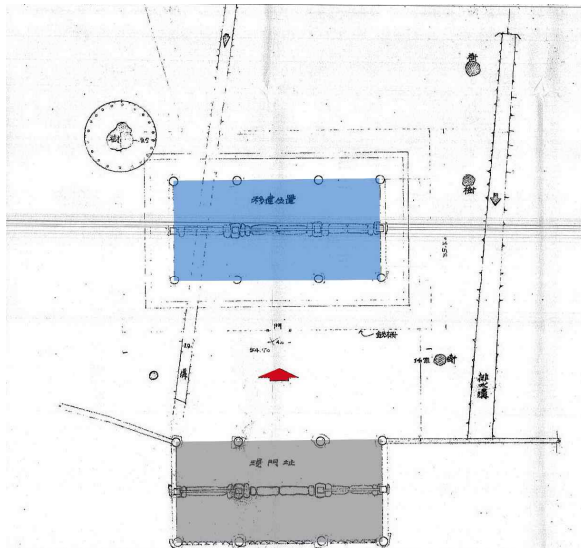
황학정 원위치 2
(경성서북부 지도, 1921 + 흥화문내총독부관사배치도1)

2) 1967 - 1985년 : 본격적인 시민공원으로의 개발

사직단 일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현옥 시장 재임(1966-70)시에 벌인 일련의 도시개조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에 사직터널이 개통되었고,⁸²⁾ 사직공원과 독립문간의 도로가 확장되며 사직단의 정문의 위치가 이전되었다.⁸³⁾⁸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원래의 사직단이 길의 끝에 위치하여 비스타(Vista)를 형성하였으나, 전면 통과도로의 개설로 인해 정면성을 놓쳤다는 점이다. 이것은 창덕궁 및 덕수궁이 20세기 초에 겪었던 변화와 같다. 돈화문이 광화문에서 창경궁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대한문이 황토현 광장에서 남대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작으로 각각 비스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되었다.⁸⁵⁾



사직터널 계획도
(동아일보, 1966.03.12.8면, 「새서울의 靑写真 (11)」)



사직단 정문 이건 배치도
(국가기록원소장, 1962)

82) 동아일보, 1967.01.21, 「社稷터널 오늘開通」

83) 동아일보, 1967.01.24, 「都市計劃(도시계획)에 할리게될 七宮(칠궁)社稷壇(사직단) 文化財委員(문화재위원)들 撤去(철거)에 反對(반대)」

84) 동아일보, 1968.02.01, 「文化財(문화재)갈고가는 都市計劃(도시계획)」

85) 전봉희, 『한국 근대도면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개통 및 확장은 사직공원 내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촉진시켰다. 특히 사직단 서쪽에는 1968년 25m×50m 국제규격의 사직파라다이스수영장이 개장되었다.⁸⁶⁾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수영장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어 녹지 훼손을 초래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수영장은 1968년 8월에 개장되었다.⁸⁷⁾

파라다이스 수영장 개장 광고 (경향신문, 1968.8.12.)



단군성전

파라다이스수영장

1968년 사직공원 내 시설 (1978년도 서울시 항공사진)

이와 동시에 1968년 사직단 서북부에 종로도서관도 들어섰다.⁸⁸⁾ 원래 종로도서관은 1921년 파고다공원 뒤에 세워졌으나, 1967년 김현옥 시장의 파고다 상가 아케이드 건립 계획에 의해 철거되면서 사직동으로 이전되었다.⁸⁹⁾ 새로 지어진 종로도서관은 1천 평의 대지에 3층(연면적 1,817평)의 규모로 조성되었다.⁹⁰⁾

86) 조선일보, 1968.08.02., 「사직공원 풀 개장」

87) 조선일보, 1968.5.22., 「사직공원 풀 개설공사 말뚝. 수목벌채등 시정토록, 공중도덕-문화재 해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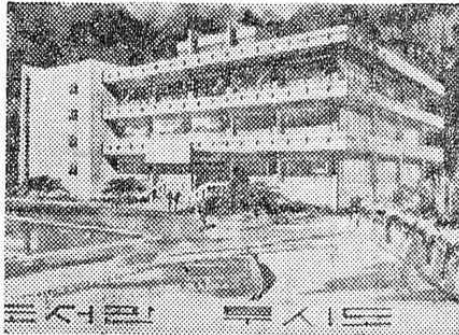
88) 동아일보, 1968.8.20., 「서울市立종로圖書館개관」

89) 동아일보, 1967.7.4., 「어디로가나?...鐘路圖書館」

경향신문, 1967.7.5., 「移轉대책없이 撤去」

鍾路도서관 起工

社稷公園안에, 明年 7 月 竣 工



사직동 종로도서관 투시도
(동아일보, 1967.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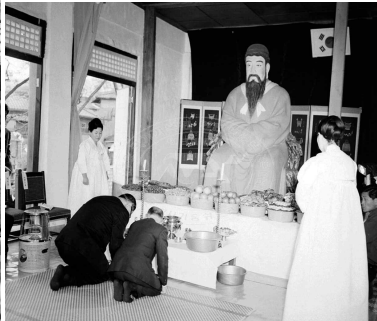


파고다 공원 뒤에 있던 구 종로도서관
('개관 48년 만에 헐릴 시립종로도서관', 동아
일보, 1967.07.04)

같은 해 1968년 사직단 서쪽으로 단군전과 사직단기념관이 세워졌다.⁹¹⁾ 이보다 앞서 1960년 사직공원 내 단군전이 건립되었는데, 이후 1967년 단군숭모회(檀君崇慕會)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립한 것이다. 이후 단군전에서는 어천절(御天節)과 개천절에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1969년 3월 15일
단군사직및선열제전
(국가기록원소장)



1969년 3월 15일
단군사직및선열제전
(국가기록원소장)



1970년의 사직동 단군사묘
(『韓國의 檀君祠廟 : 韓國新興宗
教 研究資料篇 第二部』)

또 1968년에는 사직동 산 1번지의 황학정에서 사계(射界)의 시야를 가리는 주변 암석 제거 공사를 하였다. 1967-68년 2년간의 행정 절차를 통하여 암석발파 공사를 허가받았고, 1968년 12월에 암석 제거 공사 및 환경정리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1968년 1월 21일에 있었던 무장공비 기습사건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연결 도로(현 인왕산로 및 북악산로)가 갑작스럽게 조성되었다. 이때의 계획도로대로 조성된다면 황학정은 폐정할 위기였으나 시공 관계자의 노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현재와 같이 황학정 서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었다.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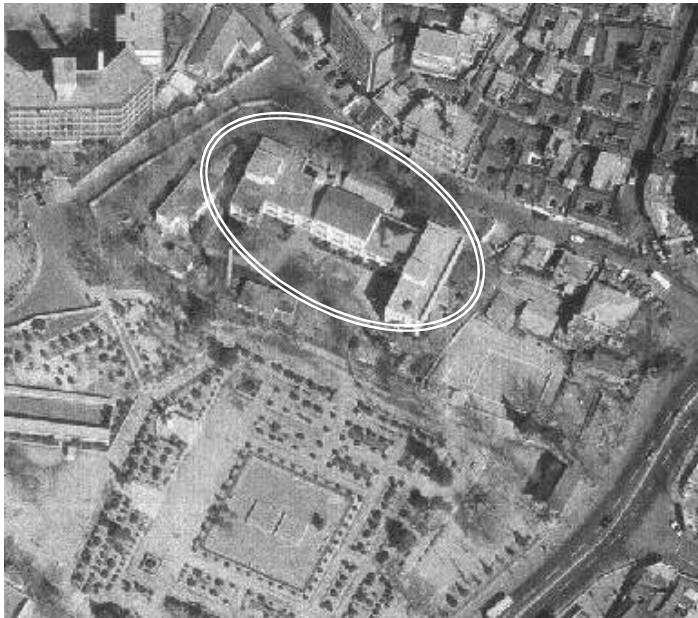
90) 동아일보, 1968.8.20., 「서울市立종로圖書館개관」
91) 동아일보, 1968.09.03., 「사직紀念館단장 奉祝제전도」
92) 황학정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76-178



1960년대 후반의 과녁 2개의 모습
(『黃鶴亭 百年史』)

뒤이어 1969년과 1970년 사직단의 서쪽에 울곡이이와 신사임당의 동상이 설치되었다. 특히 울곡이이 동상은 박정희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69년 8월 9일에 제막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방공호 옆 어린이수영장 앞에 파출소가 설치되었다.⁹³⁾

이후 1977년 시립아동병원이 강남구(현재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지와 시설을 인계받아 1979년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다. 잠시 동안은 행정자료실로 운영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으나,⁹⁴⁾ 1978년 11월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⁹⁵⁾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5월 4일 개관하였으며, 총 대지면적 2,251평, 총 연면적 1,222평의 지상 3층 건물로서 743석의 열람석과 12,000여권의 장서를 갖추었다.⁹⁶⁾



1978년 사직단과 어린이도서관(서울시 항공사진)



어린이 도서관 내부
(경향신문, 1979.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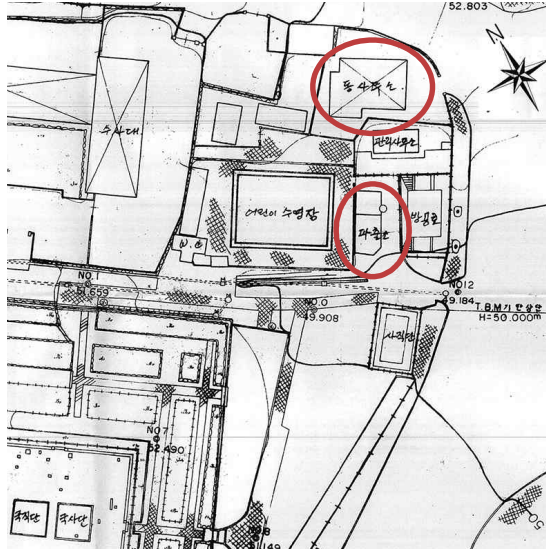
93) 「서울 사직단 및 주변정비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서울社稷壇整備 (1) : 정비계획및설계도』, 1987년, BA0807124 (국가기록원소장)

94) 동아일보, 1977.8.5., 「사직동 아동병원터 公園 만들기로」

95) 경향신문, 1978.11.9., 「社稷 市立아동병원 어린이 圖書館으로」

96) 매일경제, 1979.5.4., 「어린이전용도서관 문열어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사직공원서」

한편, 일제 시기 인보관이 지어지고, 이후 시립 영아원으로 세워져 시립아동병원으로 쓰이던 건물 역시 1977년 시립아동병원 이전과 함께 비게 되어, 이 자리에 사직동사무소(현재 사직동 주민센터)가 연면적 104평의 2층 벽돌 건물로 1979년 2월에 건립되었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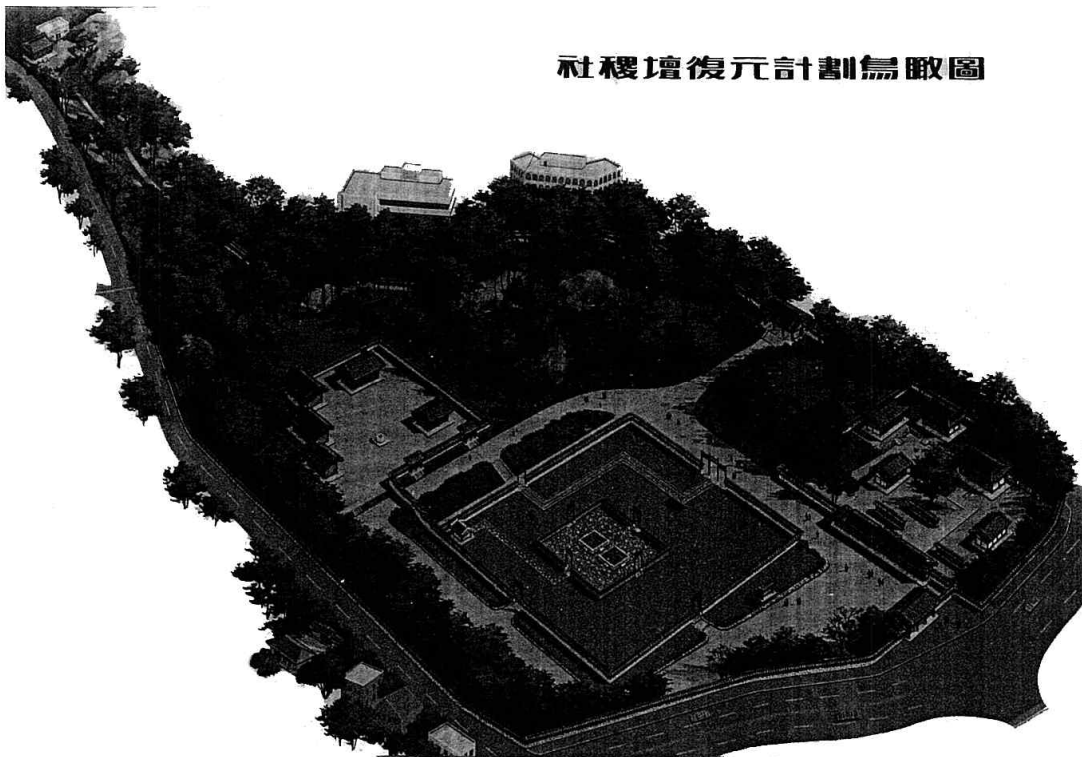


사직동파출소, 동사무소 (1987년
사직단현황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97) 「서울 사직단 및 주변정비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서울社稷壇整備 (1) : 정비계획및설계도』, 1987년, BA0807124 (국가기록원소장)

3) 1985년 이후 : 사직공원 성역화 논의의 시작

근대기를 겪으면서 심하게 훼손된 사직단 일원이 그나마 중심부의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회복한 것은 1985년 수립된 “서울 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을 통해서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1988년 사직단과 유원(壘垣), 유문(壘門) 및 주원(周垣)과 주문(周門), 신실(神室) 등이 복원 정비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던 안향청을 복원하고 그 옆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다. 또 서울제일수영장(파라다이스 수영장)이 1976년 이름을 바꿈과 어린이수영장을 철거하고, 율곡이이와 심사임당 동상을 주원 바깥의 서쪽으로 이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사직단복원계획조감도’, 『서울社稷壇整備 (1) : 정비계획및설계도』, 1987, 국가기록원 소장)

1985년에 단군신전 조성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을 통해 사직단 정화사업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사직단 정비의 일환으로 도서관의 철거 필요성도 제기되었다.⁹⁸⁾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은 당시 유일한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98) 동아일보, 1985.4.16., 「“社稷壇도 史蹟공간으로 淨化를”」



어린이도서관
(서울 5,000 지적·임야 약도, 1999)



현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http://map.daum.net>)

또한 1985년에 사직공원 성역화에 따른 수영장 철거도 논의되었다.⁹⁹⁾ 수영장의 무상사용기간이 1986년 9월로 종료되었고 1988년에 이미 종로구 수영장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¹⁰⁰⁾ 사직단 정비공사 중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직단 뒤편 종로도서관 언덕이 시작되는 곳에는 대한민국어머니헌장탑이 세워져 있다. 원래 이 탑은 1966년 덕수궁에 설치되었으나¹⁰¹⁾ 1985년 사직공원으로 이전되어 현재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사직단 정비공사 때에 공원 내 동상들의 이전 논의가 있었다. 율곡이이와 심사임당 동상이 사직단 제단과 너무 인접하여 있고 사직단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으로 옮기려는 논의도 있었으나¹⁰²⁾ 원래의 위치에서 서쪽으로 물러난 위치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김동인문학비와 어머니헌장비는 1987년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¹⁰³⁾ 김동인문학비만 이전되고 어머니헌장비는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발표하였던 서울시의 단군성전 건립은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단군 관련 민간단체에서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담보상태에 있던 단군성전 재건은 1990년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도움으로 대대적으로 개축하게 되었다. 전체 대지면적 241.99평(800㎡), 성전 건평 16평(52.92㎡), 내외삼문 5.63평(18.62㎡), 태극정문(太極旌門), 관리실 32.56평(107.64㎡)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5년에 사직공원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황학정을 경희궁의 원래 위치로 옮기려는 논의도 전개되었다. 원위치는 이미 민간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구 서울고등학교 뒤편 운동장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¹⁰⁴⁾ 여전히 현 위치에서 활터로

99) 경향신문, 1985.3.6., 「社稷공원 聖域化 社稷壇복원·檀君聖殿건립」

100) 경향신문, 1988.07.02. 「首都圈수영장 개장」

101) 동아일보, 1966.03.24. 「德壽宮에건립」

경향신문, 1966.05.07. 「8일은 어머니날」

102) 경향신문, 1987.5.2., 「社稷壇 복원계획 확정」

103) 경향신문, 1987.5.2., 「社稷壇 복원계획 확정」

104) 경향신문, 1985.3.6., 「社稷공원 聖域化 社稷壇복원·檀君聖殿건립」

경향신문, 1985.4.16, 「社稷壇도 史蹟공간으로 淨化를」

경향신문, 1986.4.3, 「경희궁崇政殿복원 내년착수」

운영되고 있다. 지도와 도면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보면, 황학정의 현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희궁1길 33-3 (신문로2가 1-4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원 위치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화살위험 경고문 (현재)



궁사들과 과녁 (현재)



황학정 진입로와 궁도회관 (현재)



황학정 전경 (현재)

5. 정리

이번의 연구는 사직단의 조성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로 시작하였으며, 문헌 조사는 물론이고 그림과 지도,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까지를 두루 검토하였다. 그 시기적 변천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직단은 태조대(1392-1398) 한양 건설과 함께 조성되었다. 사직단 축조 계획은 1393-1394년경에 이루어졌으며, 1395년에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 태조대 조성된 사직단은 당시 영조적에 근거한 너비 2장 5척의 단(壇)과 4면의 문과 담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을 둘러싼 낮은 담인 유(壘)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태종대(1400-1418)에는 1406년 사직단의 보수·정비 및 담장과 재실 조성 공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1407년 완공을 앞두고 가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1414년에 사직단의 단(壇)과 유(壘), 담장 공사가 재개되었다. 한편, 1413년에는 산위 보관을 위한 재실(齋室) 건립이 논의되었고 1416년에 설치되었다.

세종대(1418-1450)의 사직단은 1426년에 사직서(社稷署)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432년에는 단유(壇壝)의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는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다.

문종대(1450-1452)에는 의정부의 건의로 1451년 사직단에 제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건립되었다. 성종대(1469-1494)에는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1471년에는 의식이 끝난 뒤 폐백과 축판 등을 묻는 구덩이인 감(坎)의 위치를 담 안쪽으로 변경으로 변경하였고, 1491년에는 제기고를 증축하였다. 1494년에는 국왕 임어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졌다. 연산군대(1494-1506)에는 건국 초기에 쌓아 무너진 사직단의 담장을 보수하고, 사직 주변에 담장과 면하여 지어진 집들을 철거하였다.

선조대(1567-1608)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사직단이 훼손되었다. 1592년 5월 임진왜란으로 사직단의 신주가 개성, 강계(江界)로 피난하였다가 1593년에는 정주(定州), 가산(嘉山)에 머물렀다가 환도하였다. 그러나 사직단은 단유(壇壝), 신주실(神主室), 전사청(典祀廳), 풍물고(風物庫) 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직 신주는 고(故) 장흥군(長興君)의 집에 임시로 모셔졌으며, 1594년 9월까지도 사직단 영역의 보수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사직의 신주는 재차 피난을 떠났으며 후에 환도해서는 신묘(新廟)의 문 밖 내관(內官) 방준호(方俊豪)의 집을 임시 어실(御室)로 사용하였다. 1597년 10월 사직의 신주는 사직단 신실에 봉안되었으나, 당시 사직단 주변은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사직단의 보수공사는 광해군대(1608-1623)에 진행되었다. 1610년의 기록에 따르면 사직 영건청(社稷營建廳)이 설치되어 단문(壇門)과 유문(壘門) 공사가 진행되었다.

인조대((1623-1649)에는 1636년 청나라의 침입으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가 강화에 옮겨졌으며, 1637년 청나라 군대가 강화를 함락하자 남한산성을 거쳐, 창경궁 시민당에 임시 봉안되었다가, 5월에 본래 자리에 봉안되었다.

숙종대(1674-1720)에는 사직단에 재전(齋殿)을 마련하고, 전후(戰後) 선조대에 지어진 신실(神室)을 개축하는 등 사직단 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었다. 1681년 사직서 관원이 숙

직하는 집을 국왕이 머무르는 재전(齋殿)으로 고쳤다. 1694년에는 100년 전 건립된 신실(神室)이 기울어져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다시 지었다. 반면, 1712년과 1720년에는 큰 바람이 불어 신문(神門)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정조 때 편찬된 『사직서의궤』에 따르면 영조대(1724-1776)에 다수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잘 나타나있지 않다. 정조대에는 실록에서 사직단에서의 공사기록은 잘 나타나있지 않으나, 1783년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를 편찬하여 시설과 제사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사직단의 지위가 제국의 제사시설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관직, 예법의 위계, 위판 등이 변경되었으나 사직단 시설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순종대(1907-1910)인 1908년 향사리정(享祀釐正)으로 사직단의 제사는 연 2회로 고정되었고 1911년에는 원구단과 함께 사직단의 시설과 부지가 조선총독부에 인계됨으로써 제사가 완전히 정지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사직단 부지는 1912년 토지조사에 따라 사직동 1번지, 16,662평, 조선총독부 소유(국유지)의 사사지(社寺地)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사직단 영역에 물리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로 남겨져 있었다.

1920년대 들어 사직단 일곽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당시 경성부 내의 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1923년부터 사직단에는 벤치, 산책로, 가로등 등의 일부 시설만 갖추고 사직공원으로 개장하였다. 또한, 1922년경에는 경희궁의 사정(射亭)인 황학정(黃鶴亭)이 사직단 북쪽 언덕의 활터인 등과정(登科亭) 바위 곁으로 이전되었다.

1930, 1940년대의 사직공원은 인왕산과 연계된 녹지공원이자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의 장소, 사직단이라는 문화유산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33년에는 사직단 북쪽으로 매동공립보통학교가 건립되면서 사직단 부지는 도로와 학교부지가 분할되었다. 1935년 사직단이 고적(古蹟)으로 1938년 사직단문이 보물(寶物)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937년 사직단 주원(周垣) 영역이 별도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1940년에는 사직단 정문만 독립된 필지로 분할되었다. 1937년 사직공원 배치도에는 아동정원(兒童庭園)과 정자 및 변소가 설치되었고 사직단의 부속시설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안향청이 사무소로 활용되었다. 이후에도 사직단 영역에 각종 시설이 추가되어 1941년의 공원 배치도에는 아동수영장, 인보관, 정회사무소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즈음에 사직단 정문 옆으로 방공호가 조성되었다.

해방 후에서 1967년까지는 일제강점기 조성된 시설의 성격과 유사한 시설들이 이어지는 한편, 보건시설들이 들어섰다. 즉, 인보관이 있던 자리는 시립중앙보호소로 사용되다가 시립영아원이 들어섰으며, 사직단 북쪽의 경사지 위에도 1956에 보건병원이 세워졌다.

1966-1970년 김현옥 시장 재임 기간을 중심으로 사직단 일원이 본격적인 시민공원으로

개발되었다. 1967년 사직터널이 개통되면서 사직공원과 독립문 간의 도로가 확장되고 사직단 정문의 위치가 뒤로 후퇴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사직단 접근로의 정점에 있던 사직단이 노변의 인접시설로 변경되었다. 사직단 영역 내에서는 국제규격의 사직파라다이스수영장이 개장되었고 파고다 공원 뒤에 있던 종로도서관이 새 건물을 지어 이전되었다. 같은 해 사직단 서쪽에서는 단군전과 사직기념관이 새로 건립되었고, 황학정에서는 사계(射界)의 시야를 가리는 주변 암석 제거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무장공비 기습사건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연결 도로(현 인왕산로 및 북악산로)가 갑작스럽게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1969년에는 울곡이이선생상이 설치되고 사직파출소가 건립되었으며, 1970년에는 신사임당 동상도 설치되는 등 체육·문화·교통·안보·종교 시설들이 사직공원 내외에 들어섰다.

한편, 1977년 시립아동병원이 이전하고 난 후 1979년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설립되고 사직동 사무소를 새로 세웠다.

1985년 수립된 ‘서울 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은 사직단 영역이 역사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 1988년 사직단과 유원, 유문 및 주원과 주문, 신실(神室) 등을 복원·정비하고,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던 안향정을 복원하는 대신 그 옆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다. 하지만 사직단의 옛 모습을 완전히 살리는 데는 실패하였다. 1985년에 수영장 철거가 논의되어 1988년경 철거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7년 울곡선생과 심사임당의 동상을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옮겨 세웠고, 김동인문학비를 타처로 이전하였을 뿐 나머지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또한 1985년 사직공원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황학정을 경희궁의 원래 위치로 옮기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1990년 단군성전이 대대적으로 개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태조4년(1395) 국가 제례시설로 건립된 사직단은, 정종의 개경 환도와 태종의 재천도,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의 신주 피난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500여 년간 한 자리를 지켰다. 그 사이 궁궐은 정변과 외침 등의 영향으로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종묘와 사직은 왕조 국가의 상징 시설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도성의 중심부에서 권위를 유지하였다.

사직단이 훼손된 것은 조선의 국권이 피탈된 이후의 일이다. 일제 식민지 초기 원래의 기능을 잃고 유흥지로 방치되었던 사직단 일원은 1920년대 들어 도시 공원으로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하고, 식민지 말기 전쟁기에 들어서서는 방공을 위한 피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겸하여 더욱 심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1967년 사직터널을 개통하여 통과도로를 만들고, 이듬해 종로도서관과 파라다이스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그 역사적 경관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기능적 개발을 역사성 보존보다 우선시한 것은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1979년에는 새롭게 금화터널을 뚫고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광화문에서 연희동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길에 걸린 독립문은 뜬어서 길옆으로 옮겨졌다. 즉, 길 위에 놓인 개선문 형태의 독립문이 공원 가운데 조형물처럼 서있게 된 것이다.

근대기에 훼손된 역사 경관에 대한 복원 움직임은 1980년대 초의 창경궁 복원을 그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동물원과 식물원을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창경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1983년에 시작하여 1986년에 일차 완공한 것은 이후 1990년대 벌어지는 일련의 궁궐 복원 사업의 시초가 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역사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에는, 대외적으로는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대내적으로는 강남권 개발이 본격화되어 강남으로 대규모의 시설을 이전하면서 생긴 이전적지(移轉跡地)의 역사경관 회복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4년은 서울의 정도 6백주년이 되는 해로써 기념사업이 활발히 논의, 실행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재실시되면서 좀 더 섬세한 지역 밀착형의 행정이 시행된 것 등도 역사 복원 움직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직단은 궁궐이나 종묘보다 관심을 덜 받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궁궐이나 종묘와 같이 일반인의 관심을 끌만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없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없으며, 또 비교적 작은 대지이지만 다양한 관리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일괄적인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렵고, 그리고 사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서울의 도시 발전 단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 복원과 관련된 도시 정책의 일반적인 단계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192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60여 년 동안 도심내 유휴 국유지를 쫓아 건설된 각종의 근대 도시시설은 모두 그 당시 긴박하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건립된 것들이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직단의 한정된 지역 안에 있을 이유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1980년대 궁궐의 복원에 강남 개발이 순작용을 하였던 것처럼, 최근의 용산민족공원과 상암지구 개발 등 서울의 균형 개발 사업에 맞추어 좀 더 인구 밀집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희궁의 완전 복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후암동 이전 등도 참고할만한 비교대상이 된다.

한편, 1990년대까지 역사 문화재 복원에 오로지하였던 도심부 경관 복원 사업은 2003-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하여 하천 등의 생태 복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사직단 일원은 한양 성벽과 연결된 도성내 서부의 유일한 녹지 공간으로서 녹색경관 생태복원의 중요한 사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로 궁궐들이 자리한 도성 내 북부지역과 낙산 시민아파트의 철거로 조성한 도성내 동부지역, 그리고 남산 경관 복원으로 회복하고 있는 도성내 남부지역과 함께 도성내부의 사방에 고른 역사·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노력과 사직단의 복원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사직 대체의 정기적인 시연을 통한 대중적인 관심의 환기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대국민 홍보와 역사자료 고증 사업 등도 사직단의 복원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는,

이미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서울이 더 이상 기능 위주의 개발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중심 이동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에 기업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후기자본주의적 도시의 상황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자연’적으로는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매력적인 지형과 살기 적당한 기후와 깨끗한 공기, 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백제의 첫 수도이자, 조선 왕조 오백년의 도읍으로서 각종의 유형자산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역사’ 도시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베이징이나 도쿄, 상하이나 홍콩을 누르고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직단은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의 녹색경관 확보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즉, 사직단 일원의 역사성 회복은 일차적으로 종묘와 사직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도성의 상징체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다 광역적으로는 서울 도성에서 시작하여 도심부로 내려오는 녹색 경관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사직단만 중요하다거나 사직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사직단만 빠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늦출 수 없다.

6. 참고문헌

▷ 단행본

- 京城都市計劃硏究會, 『朝鮮都市問題會議錄』, 京城都市計劃硏究會, 1936
- 京城府, 『京城都市計劃書』, 京城府, 1930.
-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調查書』, 京城府, 1928.
- 京城府, 『京城府史』, 京城府, 1941.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十一: 城郭, 壇及南廟祀, 學校及文廟, 客舍, 安庫, 書院及先需住宅, 王陵』, 朝鮮總督府, 1931.
- 강신용·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왕사, 2004.
- 김영상, 『서울 육백년』, 한국일보사, 1989.
- 김재국, 『서울警察沿革史』, 서울특별시경찰국, 1974.
- 김집, 『궁도입문』, 황학정, 1997.
- 나영일, 『우리 활터 석호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大倂教倂經倂史編修委員會, 『教重光六十年史』, 倂教總本司, 1971
- McKenzie, Fred A., 『朝鮮의 悲哀』, 김창주 역, 乙酉文化社, 1984.
-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민속원, 2009.
- 사단법인顯正會, 『顯正』, 사단법인顯正會, 1973
- 서울대학교 박물관, 『그들의 시선으로 본 근대』,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4.
- 서울역사박물관, 『돌격 건설! 김현옥시장의서울 1』, 서울역사박물관, 2013.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1901년 체코인 브라츠의 서울 방문 : 체코 여행가들의 서울 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2011.
- 서울특별시, 『Seoul then and now』, 서울특별시, 1984.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 서울특별시, 1965.
- 서울특별시, 『사진으로 보는 서울 백년』, 서울특별시, 1984.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다시 일어서는 서울 : 1961~1970』, 2005.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解放後市政編)』, 1965.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팽창을 거듭하는 서울 : 1971-198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8.
- 오세옥, 김기빈, 『사직서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012
- 李康五, 『韓國의 檀君祠廟 : 韓國新興宗教 硏究資料篇 第二部』, 1970
- 임인식·임정의, 『그때그모습』, 발언, 1995.
- 종로구, 『종로구지(하권)』,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황학정 100년사 편찬위원회, 『黃鶴亭 百年史』, 황학정, 2001.
- McKenzie, Fred A., 『朝鮮의 悲哀』, 김창주 역, 乙酉文化社, 1984

▷ 공문서 (국가기록원 소장)

-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 『社寺宗教』中「사직단 폐지에 관한 훈령의 건에 대한 조복」, 1911, CJA0004741
- 『국유재산관계서류(토지조정액표철)(1941-1944년)』 中 「사직단공원광장확장절취에관한건(도

- 면첨부)」, 1941, CJA0022141
- 『국유재산관계서류(1942-1944년)」 中 「사직단공원부지내방공호구축에관한건」, 1942, CJA0022146
- 『국유재산관계서류(1943년)」 中 「경정부에대한무상대부중사직단공원부지내광장이전공사승인에 관한건(도면첨부)」, 1943, CJA0022143
- 『문화재 보수관계철(사직단표문·동묘부대건물·괴산미륵리 5층석탑, 석불입상) (2-1)」 中 「사직단정문 이전공사 중지 조치에 대한 소원장 이송-19620521」, 1962, DA0122570
- 『사직단정문벽보수및주위철책가설공사』 中 「사직단정문벽보수및주위철책가설공사설계승인」, 1965, BA0121652
- 『서울 사직단 정비(2) (2-2)」 中 「사직단 복원정비 추가공사 검토 회신」, 1987, CA0015826
- 『서울社稷壇整備 (1) : 정비계획및설계도』 中 「서울 사직단 및 주변정비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987, BA0807124

▷ 지도

- 柏書局 編, 『(朝鮮總督府作製)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 柏書房, 1985.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006.
- 삼능지도공업사, 『대서울정도』, 삼능지도공업사, 1959.
- 서울특별시,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도』, 서울특별시, 1959.
- 중앙지도문화사, 『신편 서울특별시전도』, 중앙지도문화사, 1970.
- 중앙지도문화사, 『신편 서울특별시전도』, 중앙지도문화사, 1974.
- 한국지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도』, 한국지도, 1986.
- 중앙지도문화사, 『서울특별시 지번약도』, 1989.
- 성지문화사, 『서울 1:5,000 지적·임야 약도』, 1999.
- 성지문화사, 『서울 1:5,000 지적·임야 약도』, 2002.
- 성지문화사, 『서울 1:5,000 지적·임야 약도』, 2003.
- 영진문화사, 『서울 광명 지번도 : 지적·임야편집도』, 2011

▷ 보고서

- 문화재청, 『사직단 정문 :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 논문

- 박경지, 「조선초기 사직 친제의례의 정비와 그 의미」, 사총 75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 박성진·우동선, 「일제강점기 경희궁 전각의 훼손과 변화」,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6권 1호, 2006.
- 윤금선,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9
- 유훈조, 「조선시대 주현사직단의 시설 및 부속 건축물 설치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20호, 2012.
- 이정호, 「조선 사직 소나무 숲의 복원에 대하여」, 숲과 문화 22권 1호, 2013.
- 장지연, 「조선 초 중앙 社稷壇 壇制의 형성과 그 성격」, 서울학연구 43호, 2011.

최승식 외, 「서울 사직단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권 1호, 2012.

▷ 연속간행물

- 『朝鮮王朝實錄』
- 『獨立新聞』
- 『皇城新聞』
- 『大韓每日申報』
- 『新韓民報』
- 『每日申報』
- 『時代日報』
- 『中外日報』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매일경제신문』
- 『한겨레』
- 『국민일보』
- 『朝鮮總督府官報』

▷ 웹사이트

- daum 지도 [<http://map.daum.net>]
- University of Texas Library [<http://www.lib.utexas.edu>]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김광명 교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km246770/20146937779>]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childhosp.seoul.go.kr>]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http://jllib.sen.go.kr>]